마크 노바코프스키:
현악사중주 1번 '용서의 노래', 현악사중주 2번 '할아버지의 노래들', '잊혀진 피', '자장가'

에밀리 온드레첵-페터슨(바이올린), 복사레 현악사중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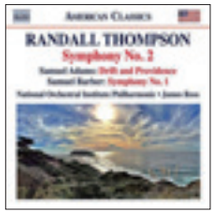
비극의 역사를 딛고 희망을 염원함

미국의 작곡가 마크 노바코프스키의 각별한 염원이 담긴 음반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비극의 역사에 대한 탄식과 명상이 담긴 현악사중주 1번 '용서의 노래',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작품인 '잊혀진 피', 고레츠키에 대한 추모의 뜻과 마크 노바코프스키 가족이 부르는 폴란드 군가 'Hej hej u ł ani(이봐요, 이봐요, 울란스-창기병)'가 담긴 현악사중주 2번 '할아버지의 노래들' 등으로 구성된 작품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 개봉된 영화 '바르샤바 1944'의 마지막 몇 분을 연상시킨다.

8559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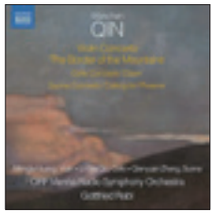
NAXOS New Releases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랜달 톰슨: 교향곡 2번, 새뮤얼 애덤스: 표류와 섭리, 새뮤얼 바버: 교향곡 1번
내셔널 오케스트럴 인스티튜트 필하모닉, 제임스 로스(지휘)
미국을 대표하는 세 명의 작곡가가 선사하는 미국 클래식 음악의 스펙트럼
8559822

코플랜드: 교향곡 3번 & 3개의 라틴 아메리카 스케치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레너드 슬래트킨(지휘)
광활하고 압도적인 환희, 세련된 여운
85598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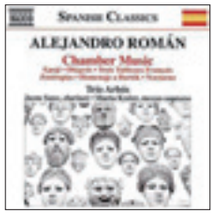
원천 친(秦文琛): 관현악 작품집
멍라 황(바이올린), 리-웨이 친(첼로), 치앤위앤 장(수르나이), 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고트프리트 라블(지휘)
대륙의 기상과 정서가 담긴 작품들
8570620

스카를라티: 건반소나타 19집
고란 필리펙(피아노)
세밀하고 따뜻한 터치, 화려한 색채와 매력적인 윤기
8573590

에밀 소레: 24개의 연습곡-카프리스(발췌)
나즈린 라쉬도바(바이올린)
더위를 식히는 한줄기 바람의 산뜻함
8573704

빌라 로보스: 교향곡 8 & 9 & 11번
상파울로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이삭 카라브체프스키(지휘)
말러의 인간적인 고뇌에 다가서려는 진심어린 연주
8573777

제이비어 제라: 기타 연주집 (2016년 GFA 국제 기타 콩쿠르 우승 기념 음반)
제이비어 제라(기타)
풋풋한 질풍노도의 열정
8573797



알레한드로 로만: 실내악 작품집
후스토 산스(클라리넷), 마르타 노르(메조 소프라노), 트리오 아르보스(연주)
다양한 요소들의 어울림이 만들어 내는 독특한 색채
8579007

짤막한 실내악 작품집
아라벨라 현악사중주단(연주)
스쳐가는 순간들, 기억의 조각들
8579013

스티븐 도지슨: 하프시코드를 위한 23개의 인벤션
예카테리나 리키나(하프시코드)
하프시코드에 대한 스티븐 도지슨의 열정
970262

음악을 담는 문화적 그릇
Aulos media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배포 및 제품 판매처]
전국 교보핫트랙스 매장/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 뮤직랜드/ 풍월당/ 예전레코드/ 올리버/ SJA 뮤직/ 소너스/ 드림레코드

아울로스 뉴스지 72호
8 809090 673444

www.aulosmedia.co.kr
www.facebook.com/aulosmedia
http://blog.naver.com/aulosmedia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72호 | July 2017

*Key Issue

Divox 쥴리아노 카르미뇰라 연주의 '비발디, 사계' 180g LP

Silkroad 롤라 보베스코 '브람스' LP

*Cover Story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의 새로운 메카, '함부르크 엘프 필하모니 홀'

그랜드 오프닝 콘서트 및 건물 형성 과정을 상세히 담은 귀중한 다큐 영상물

Key Issue

Divox 쥴리아노 카르미뇰라 연주의 '비발디 〈사계〉' 180g LP ... 3
롤라 보베스코 〈브람스 바이얼린 협주곡과 소나타〉 LP 33

Cover Story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의 새로운 메카,
'함부르크 엘프 필하모니 홀' 그랜드 오프닝 콘서트 및 건물 형성
과정을 상세히 담은 귀중한 다큐 영상물 4-5

CD

Aurora 6
BMC 6-7
BR Klassik 8
Capriccio 8-9
Cedille 9
CD Accord 10
Collegium 11
Columna Musica 11
Delphian 12
Divine Art 12
DSO Live 16
Dynamic 13-14
Grand Piano 14-15
IBS Classic 16-17
Klanglogo 17
La mà de guide 18-19
Lydia Music 19
MD&G 20-22
Naxos 23-27
Ondine 27
Orchid 28
Our Recordings 29
Resonus 29-31
Toccata Classics 32

DVD & Blu-ray

Accentus 34-35
BelAir 36-38
C Major 39-43
Dynamic 44-45
Fugue State Films 46
Naxos 47
OpusArte 48

LP

Aurora 49-50
Berliner Philharmoniker 51
Divox 52
Proprius 53
Silkroad 54

아울로스 디지털 매거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

www.aulosmedia.co.kr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_922_0100

Telefunken M15 Taperecorder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아날로그 마스터로 제작된 대표적인 〈비발디 '사계'〉 불후의 명반을 180g LP로 만나다

고전음악 레퍼토리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비발디의 협주곡 사계는 그 유명세만큼이나 명연주 명반들이 즐비하다. 그중에서 누가 선정하더라도 1위 아니면 다섯 손가락 안에는 반드시 꼽힐 명연 중의 명연이 바로 카르미뇰라의 음반이다.

Divox Antiqua LP LPX71601

비발디 '사계'

소나토리 데 라 지오이오사 마르카, 쥴리아노 카르미뇰라(바로크 바이얼린)

"세기적인 레코딩" – 지금까지의 감동은 모두 잊어라!
비발디 시대의 오리지널 악기로 연주하고 있고, 옛 악기임에도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인토네이션이나 앙상블에는 아주 작은 결점도 없이 완벽하고, 비발디 음악의 외관적 특징인 생생한 활력의 아름다움은 특히 빠른 악장에서 찬연하게 빛난다. 협주곡이 시작되자마자 펼쳐지는 화창한 봄날의 정경에 홀딱 반하고, 가을의 협주곡에서의 수수하고 상냥한 춤은 너무 매혹적이어서 가만히 앉아서 듣지 못하게 만든다. 이 이탈리아 악단이 폭발적인 인기를 끈 것은 명료함과 청량감이 극대화된 생생한 활력 때문만은 아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황량한 풍경과 대비되는 겨울 2악장이 흐르면, 따스한 벽난로에서 가슴을 녹여주는 연주의 깊이에 돌연 숙연해진다. 디복스의 놀라운 20비트 녹음 기술이 이 음반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데 큰 몫을 했다. 생생한 현악기 연주의 장점을 극한까지 보여준다. 금세기 '10대 레코딩 중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수상 (Awards)]

- 1996 "One of the 10 greatest recordings of the Century" (In Tune, J & USA)
- 1997 "One of the 2 Best "4 seasons" (Le Figaro)
- 1997 "Eccezionale" 5 Stars (Musica / It,)
- 1998 (schwarzer Stern)=outstanding (Fonoforum)
- 1998 "Top" CD-Compact (Spain)
- 1999 "One of the 50 Top-CD of the Century (Scala 100, L.Brandt)
- 2008 "No.1 sur instruments originaux" (Diapason, F,july/aug.)
- 2009 "Carmignola still No.1 on original Instruments (Fonoforum 3/09)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의 새로운 메카 '함부르크 엘프 필하모니 홀' 그랜드 오프닝 콘서트 및 건물형성 과정을 상세히 담은 귀중한 다큐 DVD, Blu-ray

2017년 1월 11일, 함부르크 엘프 필하모니 개관 기념 공연 실황을 담고 있는 영상물이다. 엘프 필하모니의 야경과 외관, 내부 곳곳을 비추는 카메라 워킹이 음악과 함께 한다. '뉴욕 타임즈'로부터 '눈에 띄는 건물, 반짝이는 콘서트!'라는 평을 받았던 개관 공연의 영상물은 역사적 현장에 있지 못했던 이들의 갈증을 한방에 해소해준다. 엘프 필하모니에 상주하는 북독일 방송교향악단(NDR)과 상임지휘자 토마스 헹엘브로크는 고음악(카발리에리 · 프레토리우스 등)과 현대음악(브리튼 · 뒤티외 · 치머만 · 리버만 등)을 교차적으로 연주하다가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으로 대미를 장식한다(112분 분량). 고화질과 고음질, 그리고 다양한 각도의 카메라 워킹이 현장의 생생함을 배가시킨다. 다큐멘터리(53분 분량)는 이 홀의 스케치 계획부터 개관 이전의 리허설에 이르기까지 형성과정을 담은 귀중한 자료이다.

[한글자막과 함께하는 특별한 다큐멘터리]

보너스 트랙의 다큐멘터리 '함부르크의 새로운 랜드마크'(53분 분량)는 첫단계인 스케치 계획에서부터 개관 이전의 리허설에 이르기까지 건물의 형성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건축가 피에르 드 뫼롱, 수석 음향기술자 야스히사 도요타, 헹엘브로크 등의 인터뷰를 담고 있다. 공연(112분 분량)과 다큐멘터리 모두 한국어 자막을 갖추었다.

C Major 741408 **[2DVDs]**
C Major 741504 **[Blu-ray]**

[보조자료]

– '가디언'지로부터 "경이로운 홀"이라는 찬사를 받은 엘프 필하모니는 숨 막힐 정도로 정교한 건축술과 항구에 입지한 독특한 위치, 그리고 세계적인 음향과 울림을 자랑하는 콘서트홀의 기술력이 빚은 독일 함부르크의 기념비이자,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인 유럽의 자존심이다. 2,011석을 수용하는 대극장은 2016년에 개관한 서울 롯데콘서트홀의 음향을 담당해 한국에도 그 이름이 익숙해진 토요타 야스히사의 빈야드(포도밭) 스타일로 최상의 음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일이 형태를 만들어둔 1,000개의 음향접시로 반사음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 2017년 1월 11일 개관 기념 콘서트 실황을 담고 있는 이 영상물은 실황 공연과 함께 엘프 필하모니의 야경과 외관, 내부 곳곳을 비추는 카메라 워킹이 함께 하는 데에 큰 매력이 있다. 개관 공연은 함부르크 라이스 할레(Laeiszhalle)에 상주하다가 엘프 필하모니의 개관과 함께 거처를 옮긴 토마스 헹엘브로크와 북독일 방송교향악단(NDR)이 연주를 맡았다. 2011년부터 상임으로 재직하며 브람스와 브루크너 등 낭만주의에 방점을 찍어온 헹엘브로크는 개관 기념 공연에서 고음악과 현대음악을 오가는 실험을 펼친다.

– 공중과 야외에서 촬영한 외관을 담은 영상이 도입부를 열고, 토마스 헹겔브로크가 입장하면서 비추는 내부의 전경은 이 공연에 자리한 듯 생생한 느낌을 제공한다. 영상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11개의 영상 트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트랙별 내용]

(1)
형이상학적인 무늬처럼 설치된 콘서트홀 내부의 비상등만 켜진 상태에서 암전 속에서 울려 퍼지는 브리튼의 '판' (오보에 칼리브 쿨쥬)

(2)
함부르크 항구에서 빛을 내고 있는 외관과 함께 하는 앙리 뒤티외 '결정적인 미스테리'

(3)
암전 상태에서 관객석 끝에서 노래하는 카운터테너 필리프 자루스키의 카발리에리 '라 펠레그리나' (하프 마르그레트 쾰)

(4)
함부르크 항구의 야경과 콘서트홀 내부의 독특한 인테리어 영상이 교차 편집되는 가운데 흐르는 베른트 치머만의 '포토토시스(Photoptosis)'

(5)
관객석 끝에 위치하여 다섯 명의 성악가들이 선사하는 프레토리우스의 고음악

(6)
롤프 리버만의 '퓨리오소'(피아노 야오 지아)

(7)
암전 상태에서 관객석 맨 끝에서 신비롭게 들려오는 카치니 '나의 아름다운 아마릴리'(카운터테너 필리르 자루스키, 하프 마르그레트 쾰)

(8)
무대의 천정에서 무대를 수직으로 내려다보며 콘서트홀의 전경을 카메라에 담은 메시앙의 '투랑갈리라 교향곡'

(9)
바그너의 '파르지팔' 서곡

(10)
볼프강 림의 '회상'(테너 파볼 브리슬릭 · 오르간 이베타 아칼라나)

(11)
함부르크 하펜시티 지역, 엘베 강변의 야경을 물들이는 화려한 건물의 불빛과 함께 울려퍼지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한나 엘리자베 뮐러(소프라노), 뷔크 렘쿨(메조 소프라노), 파볼 브리슬릭(테너), 브라이언 터펠(베이스))

'뉴욕 타임즈'로부터 '눈에 띄는 건물, 반짝이는 콘서트!'라는 평을 받았던 개관 공연의 영상물은 역사적 현장에 있지 못했던 이들의 갈증을 한방에 해소해준다. 고화질의 영상(1080i), 실황의 묘미를 제공하는 고음질의 녹음(PCM스테레오/DTS-HD MA5.0)이 현장의 생생함을 배가시킨다.

[함께 추천하는 영상]

– 헹엘브로크와 북독일 방송교향악단의
2016 브람스 교향곡 전곡 함부르크 라이스 할레(Laeiszhalle) 실황 (Cmajor741104)

Aurora www.br-klassik.de

CDS195SA [SACD]
현악사중주와 함께 하는 즐거운 순간
피터 하이드리히의 '생일축하 변주곡'(Happy Birthday Variations)
베네치아 현악사중주단(연주)

익숙한 선율, 거듭될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멋
바흐, 하이든, 모차르트 등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작곡가들이 자신의 언어로 '생일 축하노래'를 들려준다면 어떤 느낌일까. 피터 하이드리히의 '생일축하 변주곡'('생일 축하 합니다'의 주제에 의한 15개의 변주곡)은 상상만으로도 특별한 순간을 눈앞에 펼쳐 보인다. 모방과 창조의 절묘한 조화, 부담 없고 익숙한 선율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멋. 사랑은 시간의 어릿광대가 아니라고 했다. 세월의 흐름에 빛바래지 않는 소중한 만남(또는 순간)의 배경음악이 된다면 한층 각별한 기억으로 남을 듯싶다.

CDS260SA [SACD]
파가니니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파가니니 음악 VOL.1
오리지널 악기와 오리지널 조성으로 연주된 바이올린 협주곡 1.2번
콰르타 (Massimo Quarta)

오리지널 악기와 오리지널 조성으로 연주된 바이올린 협주곡 1.2번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파가니니가 사용하던 1742년산 과르네리로 연주한 음반. 또한 스코어도 파가니니 자신의 오리지널 스코어를 사용했다. 따라서 협주곡 1번의 경우 흔히 D장조로 연주해왔으나 이 음반에서는 최초로 원래 필사본 조성인 E플랫 장조로 연주했다. 2번도 1악장의 카덴차를 연주자가 만들었을 뿐 원본에 충실한 해석이다. 연주자 마시모 콰르타는 살바토레 아카르도의 제자이며 1991년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자다. 그야말로 3박자가 다 들어맞아 작곡가의 정신을 해석해낸다.

BMC www.indesensdigital.fr

추천 음반

BMC CD 250
크라이슬러에 대한 헌사
바르나바스 켈레멘(바이올린), 졸탄 코치슈(피아노)

헝가리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 '졸탄 코치슈'의 마지막 녹음
크라이슬러의 온기어린 미소에 보내는 졸탄 코치시의 헌사
2016년 세상을 떠난 졸탄 코치슈는 크라이슬러의 온화한 미소에 생애 마지막 헌사를 보냈다. 도도하고 품위 있는 자태를 뽐내면서도 의외의 재치로 허를 찌르는 바이올린의 목소리, 변함없이 온기어린 미소를 머금고 바이올린을 대하는 피아노의 자태. 켈레멘과 코치슈의 연주는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와 표정에 귀 기울이고 있는 연인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대중적이고 가벼운 듯 느껴지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라이슬러의 은근한 매력은 어느 시인의 말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흔하디 흔한 것 / 동시에 최고의 것 / 가로되 사랑이더라"

BMC CD 201 [2CDs]
슈베르트: 교향곡 1–4번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연주), 샨도르 베그(지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한 각별한 슈베르트
1997년 세상을 떠난 헝가리의 지휘자 샨도르 베그는 생전에 슈베르트 실내악 작품을 즐겨 연주했는데, 때로는 카잘스와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슈베르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그의 분신인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와 녹음한 슈베르트 교향곡(5–9번)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누구보다 슈베르트 작품을 공들여 연주했던 샨도르 베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슈베르트의 작품과 함께했다. 본 음반은 그가 슈베르트의 나머지 교향곡들(1–4번)을 연주했던 이때의 순간을 담고 있다. 소중한 기록에 묻어나는 숙연한 열정은 가슴 뭉클하게 다가온다.
****황금 디아파종**

BMC CD 223
리스트: 피아노 소나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소나타 2번
아드리안느 크라우츠(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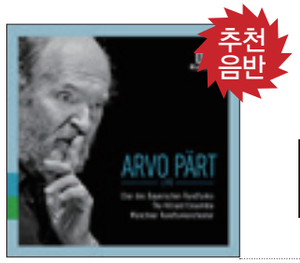
리스트에 대한 경외, 연주자의 거대한 이정표
아드리느 크라우츠는 본 음반에 대해 연주 인생의 거대한 도전이자 이정표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녀는 또한 리스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면서 라흐마니노프를 리스트가 남긴 위대한 낭만주의 전통의 기수라고 평하기도 했다. 리스트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소나타'가 담긴 본 음반은 리스트에 대한 연주자의 경의 위에 놓여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건조한듯 무뚝뚝한 터치로 그려내는 어스름한 분위기, 두 작품의 비슷한 인상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구조미는 원작과 발췌본을 두루 펼쳐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디아파종 4점**

BMC CD 224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1 & 32번, 셔포: 곧게 뻗은 미로, 쇨뢰시: 죽은 자가 있는 풍경
가보르 처로그(피아노)

베토벤의 마지막 목소리, 비슷한듯 다른 느낌을 주는 20세기 헝가리 음악가들의 작품
가보르 처로그는 본 음반에서 베토벤의 후기 피아노 소나타 두 작품(31 & 32번)과 더불어 20세기 헝가리 음악가 두 사람의 작품을 연결하는 색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 작은 음형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가운데 거대한 흐름을 이루는 쇨뢰시의 '죽은 자가 있는 풍경', 고색창연한 울림이 인상적인 셔포의 '곧게 뻗은 미로'는 음반에 수록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1번 & 32번의 푸가와 트릴, 그리고 팽창과 상승의 숨 막힐 듯한 여운을 연상케 한다. 클라이맥스에서의 힘찬 도약과 심금을 울리는 서정. 비슷한 듯 다른 작품이 주는 인상은 놀랍기만 하다.

BR Klassik

www.br-klassik.de



900319

패르트: B–A–C–H 콜라주, 벤자민 브리튼 추모곡, 마그니피카트–안티폰, 체칠리아, 기도

바이에른 방송합창단, 뮌헨 방송관현악단, 힐리어드 앙상블, 로버트 킹(지휘), 울프 셔머(지휘)

2000~2011년 아르보 패르트 실황 연주를 모은 기념비적인 앨범

첫 곡 'B–A–C–H 콜라주'는 B(B♭)–A–C–H(B) 주제와 바흐의 '영국 모음곡' 중 사라방드 주제로 만든 곡으로, 패르트 특유의 고전과 현대의 조화가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기 드문 풍부한 음향을 지닌 곽연희의 오보에 연주가 돋보인다. '벤자민 브리튼 추모곡'은 패르트의 유명한 곡 중 하나로, 현의 환상적인 중후한 화음에 나지막이 울리는 종소리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려진다. '일곱 개의 마그니피카트–안티폰'은 동방정교 저음화음의 진수이며, 관현악 반주의 합창곡 '체칠리아'와 '기도'는 보다 다양한 색채감으로 목소리의 아름다움을 들려준다.

900713

모차르트, 굴다: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론도 KV 386, 382, 즉흥곡 등

프리드리히 굴다(피아노), 레오폴드 하거(지휘) &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프리드리히 굴다가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과 69, 89년에 뮌헨의 헤르쿨레스잘과 도이체스 뮤지엄에서 남긴 녹음

재즈 밴드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던 굴다의 과거는 그가 전문 클래식 연주자로 성공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연주하는 음악적 원천이 되었다. 이번 기록은 굴다가 1982년 6월 27일 뮌헨의 도이체스 뮤지엄에서 재즈 피아니스트 칙 코리아와 함께 가졌던 "클라비어 좀머"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자작자연한 4개의 트랙과 모차르트의 KV 330을 함께 연주했던 기록들이다. 1부에 있었던 칙 코리아 음원은 유실되었으며 이 간극은 69년에 하거와 함께 녹음한 론도 작품들로 채워내고 있다. 굴다가 평생에 걸쳐 추구했던 즉흥성이 평생에 걸쳐 천착한 모차르트라는 작곡가에서 어떻게 교차하고 있는지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여주는 음반이다.

Capriccio

www.capriccio.at

C5297

프란츠 & 칼 도플러: 플루트 음악 전곡 3집

클라우디 아리마니, 구도 시게노리(플루트), 알랑 블랑슈(피아노), 엘체 시립 교향악단 등

'피가로의 결혼', '바흐 명상곡', '소녀의 기도' 등 플루트로 재탄생된 명곡들

도플러 형제는 오늘날 플루트 음악의 기틀을 마련한 거장들로, 플루트의 기교를 확장하고 보급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인기의 비결은 당시 유행했던 멜로디를 플루트 음악으로 작곡한 것이었다. 이 음반에는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도니체티의 '연대의 딸' 등 여러 오페라의 유명한 노래로 만든 작품들과 함께, 바흐의 '전주곡 C장조'에 붙인 구노의 멜로디를 두 대의 플루트를 위해 편곡한 '바흐 명상곡', 바다르체프스카의 '소녀의 기도' 등이 수록되어있다. '헝가리 풍의 작은 이중주' 등 오리지널 작품들에서는 플루트의 화려한 기교를 즐길 수 있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C3003

줄리 데이비스의 가곡 리사이틀

줄리 데이비스(소프라노), 찰스 스펜서(피아노)

풍부한 성량과 이면의 떨림, 마음을 움직이는 멋

네프처 영 아티스트 콩쿠르 1위 입상 등 다수의 국제 콩쿠르 수상 경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소프라노 줄리 데이비스는 2015년 파리에서 '돈 지오반니'(돈나 안나 역)로 데뷔한 이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피델리오'(마르첼리네 역)로 호평을 받았다. 그녀는 오페라뿐만 아니라 필립 조르당 등의 함께 베르디, 풀랑, 스트라빈스키의 합창음악을 연주하는 등 성악 전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녀의 첫 번째 리사이틀 음반에는 벨리니, 슈베르트, 리스트, 바그너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풍부한 성량과 이면의 떨림은 마음을 움직이는 멋이 있다.

C5293

에른스트 토흐: 피아노 독주 작품집

안나 막달레나 코키츠(피아노)

에른스트 토흐와의 각별한 인연 & 통통튀는 매력과 재치

오스트리아의 피아니스트 안나 막달레나 코키츠는 현재 유럽 각지에서 독주자와 실내악 연주자로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그녀는 15살 때 '지리학적 푸가'를 통해 에른스트 토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에른스트 토흐는 그녀의 연주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회고한다. 에른스트 토흐의 고도로 정제된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된 본 음반은 작곡가에 대한 연주자의 헌사를 담고 있는데, 작곡가에 대한 애정은 작품 해설 등 음반 곳곳에서 드러난다.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통통 튀는 매력과 재치는 작품의 본질과 닿아있다.

Cedille

www.cedillerecords.org

CDR 90000171

호르헤 페데리코 오소리오: 브람스와 슈베르트 생애 마지막 피아노 작품들

호르헤 페데리코 오소리오(피아노)

통찰력 있는 시야, 서사적인 스케일, 풍부한 선율미의 오묘한 조화

우아하고 뛰어난 연주력을 갖춘 피아니스트로 평가 받는 호르헤 페데리코 오소리오의 야심찬 신보이다. 오소리오는 20여 년 전 극찬을 받았던 브람스의 '간주곡'을 비롯해 브람스와 슈베르트 생애 마지막 피아노 작품들을 갈무리하고 있다. 투명하고, 무뚝뚝하며, 깊이 있는 반향을 적절히 구사하는 오소리오의 연주는 너른 시야와 서사적인 스케일, 풍부한 선율미가 오묘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슈베르트와 브람스 만년의 통찰에 다가서고 있다. 오소리오의 독특한 아우라는 언뜻 옛 시절 대가들의 연주를 떠올릴 만큼 인상적이다.

CD Accord www.cdaccord.com.pl

ACD232–2
계몽시대 비르투오소
즈비그뉴 필흐(바이올린)

'혁명과 낭만'의 전조, '계몽 시대'의 영감
'혁명과 낭만'의 전조가 된 '계몽'의 여파는 예술가들에게 있어 자신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으려는 의지로 나타났다. 폴란드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즈비그뉴 필흐는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계몽 시대의 비르투오소를 조망했다.
헨델, 피오릴로, 파가니니 등 바로크–질풍노도–감정다감의 영감, 농익은 고전의 색채, 낭만의 전조가 공존했던 '계몽'의 분위기는 당시 어느 한 귀퉁이를 배회하는 바이올린의 독백으로 되살아난다. 작곡가들을 둘러싸고 있던 시대 분위기, 영화의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들어도 좋을 듯하다.

ACD235–2
지난날들과 대화하는 작곡가들의 목소리
마르친 마즈크로스키(바이올린), 그제고슈 스크로빈스키(피아노)

지난날에 대한 4인 4색의 대화
코른골드, 니노 로타, 슈니트케, 필립 글래스. 네 명의 작곡가들은 영화 음악을 작곡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음반의 원제목인 'Different Things'처럼 언뜻 공통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작곡가들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담긴 네 개의 작품들은 과거와 대화하는 작곡가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뜻밖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헛소동'을 비롯해 지나간 날들에 대한 애수와 향수, 유년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는 4인 4색의 목소리는 감수성 짙은 연주와 함께 되살아난다. '다름' 속에 숨겨진 이채로움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ACD237–2
첼로 사중주의 새로운 발견
폴란드 첼로 사중주단(연주)

네 대의 첼로가 연출하는 네 겹의 색채
첼로 사중주의 진정한 멋을 알리기 위해 2011년 창단한 폴란드 첼로 사중주단은 현재 폴란드 브로츠와프 내셔널 포럼 오프 뮤직(NFM)의 상주 연주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4곡의 첼로 사중주가 수록된 본 음반에서 이들은 '다프니스와 클로에'의 인상(에에쵸테의 '소나타 소품'), 이탈리아 오페라의 색채(마츠의 '사중주', 피아티의 '휴가'), 폴란드 민속 음악과 화려한 기교의 향연(비우코프스키의 '발라드와 랩소디')을 통해 네 대의 첼로만이 연출할 수 있는 네 겹의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Collegium www.collegium.co.uk

CSCD523
존 루터가 지휘하는 흑인영가와 노래집
멜라니 마셜(메조 소프라노), 웨인 마셜(피아노), 말콤 크리스(더블베이스), 캠브리지 싱어즈(합창), 존 루터(지휘)

유쾌하고 세련된 감성, 시대를 초월한 영감이 선사하는 즐거움
지난 2001년 출시된 존 루터의 인기작(CSLCD 128)이 재발매 되었다. 존 루터의 감성으로 편곡된 흑인 영가는 파트송의 담백한 색채에 유쾌함이 어우러져 한층 세련된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존 루터가 조지 시어링에게 헌정한 'Birthday Madrigals'은 조지 시어링의 '셰익스피어의 노래와 소네트'와 더불어 음반의 다른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음반 전반에 걸쳐 작품의 색채를 훌륭하게 이끌고 있는 웨인 마셜의 피아노, 베이스의 감칠맛 나는 윤기, 유쾌하고 세련된 감성과 시대를 초월한 영감은 그 자체로 즐겁다.

Columna Música www.columnamusic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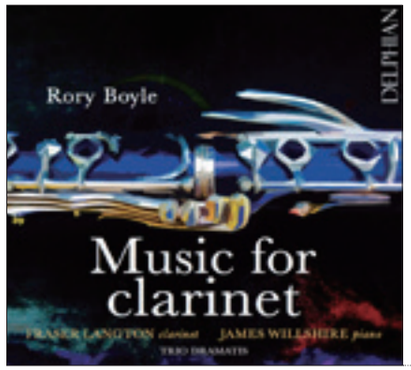
1CM0344
1700년의 바르셀로나: 마음속의 음악
사비에르 파게스(바리톤), 산티아고 피게라스(테오르보, 바로크 기타)

마음의 깊은 곳까지 공명을 일으키는 편안하면서도 눈물을 머금은 멜로디
1700년에 한 음악 애호가가 바르셀로나를 여행한다면 어떤 작곡가들의 어떤 음악들을 듣게 될까? 이 여행자는 바르셀로나를 '기타의 도시'라고 묘사할 것이다. 그리고 프란체스크 발스, 토마스 밀란스, 조세프 가스 등의 작곡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의 노래들을 들을 것이다. 이 음반은 이러한 흥미로운 시나리오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 세 작곡가와 작곡가 미상의 카탈루냐어 노래로 우리를 1700년의 바르셀로나로 데려다 놓는다. 편안하면서도 눈물을 머금은 멜로디는 마음의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던 감정까지 공명을 일으킨다.

1CM0353
알베니스: 스페인 모음곡/ 그라나도스: 마을에서/ 몸포우: 노래 등
넥서스 피아노 두오

두 대의 피아노로 듣는 스페인 피아노 음악의 모든 것
넥서스 피아노 두오는 포로스 국제 피아노 음악제에서 1등상을 받는 등 최고의 호흡과 뛰어난 연주로 정평이 나있다. 이 음반에서는 이 두 연주자의 기량뿐만 아니라 스페인 피아노 음악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 스페인 국민악파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알베니스의 '스페인 모음곡'과 '파바나–카프리초'는 스페인의 정취 그 자체이며, 그라나도스의 '마을에서'는 '고예스카스'로 대표되던 그의 서정미가 흘러넘친다. 피아노의 성자 몸포우의 소품 '노래'는 영롱한 음색이 매혹적이며, 몬살바제의 '세 개의 디베르티멘토'는 음악적 유희를 즐긴다.

Delphian www.delphianrecords.co.uk



DCD34172
로리 보일: 클라리넷 작품집
프레이저 랭튼(클라리넷), 제임스 윌셔(피아노), 트리오 드라마티스
특징적인 선율과 개성적인 화음으로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음악들
로리 보일(*1951)은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현재 스코틀랜드 왕립음악원에서 작곡 교수이다. 그의 음악은 현대적인 음악적 실험보다는 특징적인 선율과 색다른 화음을 만드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음반에 수록된 클라리넷을 위한 작품들은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갖추고 있다. 특히 〈클라리넷 소나티나〉는 현대의 도시인이 겪고 있는 고독과 피로로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듯 평온하고 따뜻하다. 포근하고 순수한 음색을 지닌 BBC 필하모닉의 수석 프레이저 랭튼의 연주가 이에 한몫하고 있다.

Divine Art www.divineartrecords.com

dda25151
시마노프스키: 피아노 작품집
바르바라 카라스키에비치(피아노)
시마노프스키의 음악 세계를 비추는 지고한 열정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 바르바라 카라스키에비치는 그녀의 광범위한 레퍼토리 중에서도 후기 낭만주의 폴란드 작곡가의 작품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스타코프스키의 작품(DDA25129)에 이어 그녀는 폴란드를 대표하는 작곡가 시마노프스키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주곡', '연습곡', '가면', '마주르카'가 수록된 본 음반은 시마노프스키의 작품 세계를 축약해 놓았다 해도 좋을 법하다. 쇼팽과 인상주의 색채가 어우러진 '가면'의 반향이 특히 인상적이다. 시마노프스키의 음악 세계를 비추는 지고한 열정이 담긴 음반이다.

DSO Live www.dso.org/live

DSOL-5
말러: 교향곡 6번 '비극적'
댈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얍 반 츠베덴(지휘)
말러의 인간적인 고뇌에 다가서려는 진심어린 연주
현재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으로서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얍 반 츠베덴과 댈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추억이 담긴 음반이다. 음반에 수록된 말러 '교향곡 6번'은 2011년 댈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유럽 투어 프로그램으로서 투어 직전 메이어슨 심포니 센터에서 연주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따뜻한 색채를 띠는 가운데 진폭 크게 요동치는 타악기와 저음현, 묵직한 '운명의 타격'은 말러의 인간적인 고뇌를 가슴 깊이 담고 있는 듯하다. 전체 연주 중에서도 특히 4악장이 압권이다.

Dynamic www.dynamic.it

CDS7786.02 [2 for 1.5]
무소르그스키: 무소르그스키 피아노 작품 전집
지아코모 치나르도(피아노)
장중하면서도 투명한 색채, 무소르그스키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작품들
무소르그스키는 13세(1852년) 때 첫 번째 피아노 소품인 '기수(旗手)'를 작곡했다. 이후 그의 피아노 작품은 '전람회의 그림'(1874), '소로친치의 시장'(1881) 등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다. 무소르그스키의 피아노 작품들은 베토벤, 베를리오즈, 멘델스존, 슈만, 리스트 등의 작품과 러시아 민속 음악 요소를 자신의 색채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탈리아의 피아니스트 지아코모 치나르도의 가벼우면서도 또랑또랑한 터치는 장중하면서도 때로는 글린카의 '종달새'를 연상시키는 뜻밖의 투명한 색채를 인상 깊게 표현하고 있다.

CDS195
현악사중주와 함께 하는 즐거운 순간 – 피터 하이드리히의 생일 축하 변주곡 (Happy Birthday Variations)
베니치아 현악사중주단(연주)

익숙한 선율, 거듭될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멋
바흐, 하이든, 모차르트 등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작곡가들이 자신의 언어로 '생일 축하노래'를 들려준다면 어떤 느낌일까. 피터 하이드리히의 '생일축하 변주곡'('생일 축하 합니다'의 주제에 의한 15개의 변주곡)은 상상만으로도 특별한 순간을 눈앞에 펼쳐 보인다. 모방과 창조의 절묘한 조화, 부담 없고 익숙한 선율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멋. 사랑은 시간의 어릿광대가 아니라고 했다. 세월의 흐름에 빛바래지 않는 소중한 만남(또는 순간)의 배경음악이 된다면 한층 각별한 기억으로 남을 듯싶다.

CDS7784.02 [2CDs]
장-밥티스트 아르망: 베르디의 오페라에 의한 환상곡
안젤로 카발로(코넷), 미켈레 폰타나(피아노)

부드럽고 우아한 코넷의 음색, 베르디 오페라 아리아의 빼어난 서정
19세기 유럽, 바이올린에 파가니니가 피아노에 리스트가 있었다면 코넷에는 장-밥티스트 아르망이 있었다. 코넷 연주자이자 작곡가, 교육자로 활동한 그는 코넷의 역사에서 바흐와 슈만에 비견될 정도의 업적을 남겼다. 음반에 수록된 '베르디 오페라 아리아 주제에 의한 (14개의) 환상곡'은 '베니스 사육제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함께 아르망의 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도밍고의 목소리를 연상시키는 코넷의 부드럽고 우아한 음색과 표현력, 화려한 기교에 담긴 베르디 오페라의 서정은 원곡만큼이나 빼어나다. 강력 추천한다.

Grand Piano

www.grandpianorecords.com

GP726–27 [2CDs]
야코비: 피아노 소나타 2, 3번, 파사칼리아와 푸가, '아담의 타락에 의해'에 의한 음악 등
타티아나 블로메, 홀거 그로쇼프(피아노)

최근에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야코비의 드라마틱한 피아노 음악들
볼프강 야코비는 유명한 색소폰과 아코디언 연주자로서, 생전에 그의 진지한 작품들이 빛을 보지 못했지만 요즘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파사칼리아와 푸가', '옛 스타일의 모음곡' 등 초기에는 인상주의적인 화음과 라흐마니노프 스타일의 진지한 선율 등 농도 짙은 말기 낭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1930년대에 나치로부터 박해를 받아 이탈리아로 이주한 후 고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나타와 소나티나 등에 바로크와 신고전으로부터 받은 인상을 새겨 넣었다. 바흐의 코랄 '아담의 타락에 의해'에 의한 음악은 그 상징적인 작품이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GP733
코젤루흐: 피아노 소나타 33~37번 (소나타 전집 9집)
켐프 잉글리시(포르테피아노, 하프시코드)

갈랑, 질풍노도, 아름다운 아다지오 등 18세기 후반 고전음악의 전시장
코젤루흐는 모차르트보다 두 배 많은 급료를 받았으며, 베토벤과 라이벌로 견줄 정도로 당대 최고의 거장이었다. 이 음반에는 1780년대 후반부터 1790년대 초에 걸친 소나타 다섯 곡을 수록했다. '소나타 36번'은 질풍노도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는 곡으로, 강렬한 감성적 표현과 극적인 대비 등이 인상적이다. 반면에 '소나타 37번'은 18세기 중반 우아한 갈랑 양식을 보여주는데, 켐프 잉글리시는 이에 맞춰 이 곡만 하프시코드로 연주한다. 이 음반에서 주목을 끄는 음악은 '소나타 34번'과 '소나타 35번'의 아름다운 아다지오 악장이다. ****세계 최초 녹음포함**

GP761
사티: 피아노 전곡 1집/ 짐노페디, 그노시엔, 오지브, 사라방드, 장미+십자회의 종소리 등
니콜라 호르바트(피아노)

미니멀리즘 음악의 원류이자 상업적 음악의 표본이 된 초기 작품 총집합
음악사상 기인 작곡가 중 한 사람이었던 에릭 사티. 처음에는 쇼팽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음반에 수록된 초기 왈츠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세 개의 오지브', '세 개의 사라방드', '세 개의 그로시엔' 등 고전 형식을 거부하고 미니멀리즘 음악의 원류이자 상업적 음악의 표본이 된 초기의 스타일을 대변하는 작품들이 수록되어있다. 그 중에서도 '세 개의 짐노페디'는 사티의 가장 유명한 곡이자 초기의 대표작이다. 빈 공간에 울리는 단순한 반복 화음과 그 위에 떠있는 단순한 선율이 주는 감동은 백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피부로 느껴진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GP750
루리에: 피아노 작품 2집
기오르기오 코우클(피아노)

루리에의 음악세계가 스펙트럼처럼 펼쳐지는 피아노 작품들
아르투르 루리에는 글라주노프로부터 정통 러시아 낭만음악을 전수받았으며, 여기에 현대적인 표현력을 더하여 그만의 음악세계를 펼쳤다. 이 음반은 21~47세의 작품들을 폭넓게 수록했다. 21세 때의 〈두 개의 시〉는 영롱한 음색을 들려주며 인상주의의 영향이 보이지만, 불과 3년 후인 〈낮의 일상〉은 불협화음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26세 때의 〈여덟 장면〉은 가벼운 터치를 보여주는 반면, 30대의 소품들은 반음계적인 풍부한 소리 공간이 작품에 무게감을 더한다. 47세 때의 〈피닉스 파크 녹턴〉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다.

GP760
스테파니안: 26개의 전주곡
미카엘 아이라페티안(피아노)

"가장 위대한 아르메니아 작곡가" 스테파니안의 완숙한 경지
아르메니아 출신의 거장 하차투리안은 하로 스테파니안을 "가장 위대한 아르메니아 작곡가"라고 칭송했다. 스테파니안은 세 세트의 '여덟 개의 전주곡'에, 만년에 두 곡을 더하여 모두 26곡의 전주곡을 완성했다. 이 곡들은 서로 대조적인 다양한 표정을 지니고 있으며, 민속음악의 영향을 받은 음형이 곳곳에 새겨져 있다. 이 곡들은 60세부터 78세 사이에 작곡한 만큼 완숙한 경지의 세련된 음악을 들려준다. 낭만적인 화음과 자유로운 선율에 민속적인 리듬과 과하지 않은 꾸밈음까지 완벽하게 어우러져, 친숙하면서도 이국적인 독특한 인상을 준다.
****세계 최초 녹음**

GP764
퐁세: 피아노 작품 2집
알바로 센도야(피아노)

눈부신 쿠바의 인상과 호기심 어린 프랑스의 인상
멕시코의 작곡가 마누엘 퐁세는 오늘날 낭만적인 선율과 감각적인 화음으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음반은 20대의 초기 작품들 위주로 수록했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1915부터 1917년까지 쿠바에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작곡된 〈쿠바 광시곡 1번〉과 〈쿠바 모음곡〉, 〈쿠바 전주곡〉, 〈쿠바나〉 등에는 작품들에는 쿠바의 햇살이 어른거린다.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도 화려한 장식적인 표현에 눈이 부신다. 40대에 파리 체류 시절 작품인 〈연쇄적 전주곡〉과 〈복조성 모음곡〉에는 새로운 작곡방식에 눈뜬 호기심 어린 그의 모습이 그려진다.

IBS Classical

www.ibsclassical.es

IBS–32017

새로운 라 폴리아

안토니오 가르시아 호르헤(색소폰), 알렉시 구르넬(피아노)

색소폰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열정

음반의 제목인 '새로운 (라) 폴리아'는 13번 트랙에 수록된 윌리엄 알브레히트의 '소나타' 2악장의 부제이자 음반에 연주자로 참여한 안토니오 가르시아와 호르헤와 알렉시 구르넬의 열정을 대변하고 있다. 색소폰의 가능성을 탐구한 빌라 로보스와 페르낭 드크뤼크, 윌리엄 알브레히트 작품의 다채롭고 정열적인 매력은 '라 폴리아'에 담긴 열정, 변화무쌍한 영감과 일치하는 듯하다.
특히, 색소폰과 피아노 버전으로 편곡된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의 그윽함과 관능적인 활기는 호소력 짙은 매력을 내뿜는다.

IBS–52017

스페인의 첼로 소나타

이아고바 파늘로(첼로), 파블로 아모로스(피아노)

전쟁을 피해 망명을 떠났던 스페인의 걸출한 작곡가들의 망향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유럽은 전통에 대한 회의로 아방가르드에 몰두했다. 하지만 스페인은 오히려 고전에 탐닉하며 마음의 위안을 찾았다. 외국으로 망명을 떠났던 스페인 작곡가들의 첼로 작품들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알프테르의 '첼로 소나타'는 "그의 최고의 작품 중 하나", "완벽한 작품"이라는 극찬을 받았으며, 콜만의 '첼로 소나타'는 스페인과 그가 머물렀던 멕시코의 민속음악이 현대성이 가미되어 격렬하게 율동한다. 게라르드는 쇤베르크의 제자로서, 현대적인 화음이 가득하지만 리듬과 열정은 스페인의 피를 속일 수 없다.

IBS–62017

S. 아사드: 소나타/ 브루웨르: 소나타 3번/ 시에라: 소나타

류시엔지(기타)

라틴아메리카 최고의 기타 음악 작곡가들이 만든 기타를 위한 소나타들

류시엔지는 타레가 국제 기타 콩쿠르에서 우승한 최초의 중국인이며, GSD 클래식 기타 국제 콩쿠르에도 우승한 실력파 기타리스트이다. 이 음반은 세 명의 라틴아메리카 작곡가의 작품을 수록했다. 가장 기타다운 음악을 쓰는 세르히오 아사드는 '소나타'는 폭넓은 음정과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기타 사운드의 매력을 곡의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펼쳐놓는다. 기교적인 작품으로 정평이 나 있는 브루웨르는 '소나타 3번'에서 강렬한 에너지로 연주자와 감상자 모두를 매혹시킨다. 시에라는 '소나타'에서 자신의 특징인 원초적 리듬의 향연을 벌인다.

IBS–72017

그라나도스: 젊은 시절 이야기, 어린이 정경, 표현 연습곡, 스케치 등

에밀리오 곤살레스 산스(피아노)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그려낸 아기자기한 음악 엽서

'고예스카스'로 유명한 그라나도스는 스페인 민족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며, 오늘날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그의 작품을 연주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파리에서 공부하여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피아니스트 출신으로서 대부분의 작품을 피아노를 위해 썼다.
이 음반은 이러한 전형적인 그라나도스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특히 열곡의 소품을 담은 '젊은 시절 이야기'와 다섯 곡의 소품 모음인 '어린이 정경'은 꿈길을 걸으며 과거를 추억하는 아련함으로 가득하다. '표현 연습곡'은 기교가 아닌 음악적 표정을 지어보이는 연습을 한다.

Klanglogo

www.klanglogo.de

KL.1520

헨델: 아홉 개의 독일어 아리아, 크리거: 새로운 아리아, 슈멜처: 음악적인 펜싱 학교

프리츠 슈펭글러(카운터테너), 앙상블 콘트라풍크트_어스, 크리스티안 포스(바로크 바이올린)

바로크 후기의 거장 헨델과 크리거의 희귀한 연주회용 독일어 아리아

슈펭글러는 2015년에 최고 성적으로 모차르테움 음악원을 졸업했으며, 2010년에 빈첸차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두 개의 상을 받았다. 현재 그는 몬테베르디와 비발디, 바흐, 헨델, 글루크 등 바로크와 고전의 오페라에서 카운터테너로 맹활약 중이다. 슈펭글러는 헨델의 '아홉 개의 독일어 아리아'와 크리거의 '새로운 아리아'에서 안정된 발성과 자연스러운 비브라토로 바로크 후기의 감각적이고 화려한 음악세계를 펼친다. 슈멜처의 '음악적인 펜싱 학교'는 사육제를 위한 발레곡으로, 앙상블은 이 곡의 묘사적이고 서술적으로 성격을 재치 있게 풀어냈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La mà de guido

www.lamadeguido.com

'라 마 데 귀도'는
'이베리아 반도의 음악의 발견'이라는 모토로 세워진 레이블이다. 지역적으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음악가와 음악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시대적으로는 바로크부터 현대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 또한 스페인을 상징하는 악기 기타는 물론, 실내악과 관현악, 시대악기 연주에 이르기까지, 이베리아 반도의 모든 음악을 담아내고 있다. 2013년에 명예로운 코달라리오 최고음반상(premi Codalario)을 수상했다.

LMG2119
바르셀로나의 기타 음악
미겔 자발로이(기타)
낭만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바르셀로나 기타음악의 역사
바르셀로나와 관련이 있는 작곡가들의 오리지널 기타 작품들을 수록한 앨범으로, 낭만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기타음악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이다. 소르는 로맨틱 기타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로, 고전미와 함께 초기 낭만의 애틋한 음조가 매력적이다. 프랑스에서 '기타의 왕'이라고 불렸던 자우메 보쉬는 춤곡 리듬 위에 톡톡 튀는 산뜻한 멜로디를 들려준다. '알함브라의 추억'으로 유명한 타레가는 마음의 안식을 주며, 미켈 료베트의 아름다운 멜로디는 매혹적이다. 역동적인 리듬 위에서 춤추는 에밀리 푸졸은 남다른 생기가 넘친다.

LMG2122
드뷔시, 알베니스, 로드리고, 데 라 마사: 기타 작품집
마르가리타 에스카르파(기타)
독특한 선곡이 돋보이는 정상급 기타리스트의 음악 선물
"완전한 예술가" 기타리스트 마르가리타 에스카르파에 대한 찬사이다. 그녀의 레퍼토리는 스페인 기타 음악뿐만 아니라 바흐를 비롯하여 다양한 클래식 작품들을 섭렵하며, 많은 작품들을 기타를 위해 편곡하고 있다. 스페인 작곡가들에 앞서 드뷔시의 편곡을 연주한 이 음반은 이러한 에스카르파의 음악세계를 대변하고 있다. 드뷔시의 '달빛'을 비롯한 네 곡에는 기타의 섬세한 주법을 통해 새로운 색을 입히고, 알베니스는 특별히 지역을 제목으로 하는 세 곡을 모았으며, '아란후에스 협주곡'으로 유명한 로드리고의 아름다운 소품도 감동적이다.

LMG2123
17세기 바르셀로나 성당의 교회음악
프란세스크 발스 실내합창단, 다비드 말레트(지휘)
바로크 시대 바르셀로나의 빼어난 음악 유산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바르셀로나는 오늘날 뛰어난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뜻밖에도 문화사적 발자취가 잘 알져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카탈루냐어로 되어있는 유산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19세기에 지역 문화를 스스로 높이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문화적 활동이 활발히 이뤄진 곳임은 분명한데, 17세기에 바르셀로나 성당에 울려 퍼졌던 교회음악을 수록한 이 음반은 그 소중한 증거물이다. 바로크 음악이 갖고 있는 대위법적 구성과 완벽한 하모니, 그리고 정서적 표현의 수준은 출중하며, 바르셀로나 성당의 울림은 도취되도록 아름답다.

LMG2124
낭만시대의 기타를 위한 음악
토마 빌로토(기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카탈루냐 등 유럽 각지에서 탄생한 기타를 위한 낭만음악
프랑스의 기타리스트 토마 빌로토는 세고비아 콩쿠르를 비롯한 여러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그는 이 음반에 이탈리아 작곡가인 파가니니와 레냐니, 카탈루냐 작곡가인 페란 소르, 그리고 프랑스 작곡가인 나폴레옹 코스트, 독일 작곡가인 멘델스존 등 유럽 각지의 초기 낭만음악을 수록했다. 파가니니의 유명한 '광시곡 24번'은 기타음악으로 완벽하게 승화되었으며, 대표적인 로맨틱 기타 작곡가인 소르의 '애도의 환상곡'은 약 20분에 이르는 보기 드문 대곡이다. 레냐니와 코스트의 소품들은 오리지널 기타음악의 매력을 발산하는 아름다운 작품들이다.

LMG2143
그라나도스: 고예스카스, 엘 펠렐레
마르타 사발레타(피아노)
열정적인 사랑과 죽음을 그린 스페인 낭만주의의 최고봉
엔리크 그라나도스는 스페인의 3대 민족주의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스페인의 열정적인 리듬과 선율, 그리고 프랑스의 인상주의적 화음이 결합된 독특한 피아노 음악으로 큰 명성을 얻었다. 그 중에서 '고예스카스'는 스페인 낭만주의의 최고봉으로 평가받으며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라나도스는 고야의 바로크적인 소묘 '카프리초스'라는 그림 시리즈에서 영감을 얻어 연인의 열정적인 사랑과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떠올렸는데, 이것을 바그너적인 두터운 하모니와 극적인 진행을 통해 시적이고 낭만적인 이미지로 표현했다.

Lydia Music

www.orchidclassics.com

LYD002
피아노 협주곡 – 아다지오 악장 모음집
엘리자베트 송바르(피아노),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피에르 발레(지휘)
프랑스 출신의 피아니스트 엘리자베트 송바르는 레소낭스 재단을 설립하는 등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에 집중해왔으며, 2015년 부터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음반을 선보이고 있다. 자신이 아끼는 피아노 협주곡의 느린 악장들을 선별한 본 음반에는 느린 악장의 매력을 통해 청중에게 작곡가들의 내면을 전달하고자하는 연주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깊고 느린 흐름 속 무언의 서정이 선사하는 교감의 순간은 아득하기만 하다. 느림의 미학에 빠져볼 만한 음반이다.

MD&G www.mdg.de

303 2002–2
샤미나드: 피아노 트리오 전곡 외
트리오 파르나수스

샤미나드의 낭만적인 피아노 트리오 전곡집
프랑스의 여류 작곡가 세실 샤미나드는 당대 여성들이 활동하기 어려웠던 환경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재능으로 당대 많은 인기를 누렸던 작곡가였다. 공개적인 연주회보다는 내밀한 살롱에서 주로 연주되었던 그녀의 작품들은 포레나 슈만을 연상시키는 낭만적인 선율선이 특징이다. 이번 앨범에는 샤미나드가 남긴 두 개의 피아노 트리오 전곡을 수록하고 있다. 베토벤, 멘델스존, 슈만과 브람스 등의 주요 트리오들을 남겼던 트리오 파르나수스는 원숙하고 정적인 매력으로 샤미나드의 내밀한 감정선을 잘 그려내고 있다. 특히 트리오 Op.34 렌토 악장의 아름다움은 각별하다.

335 2016–2
안톤 루빈스타인: 첼로 협주곡, 교향곡 2번 '바다' 등
조지 한슨(지휘), 부퍼탈 심포니 오케스트라, 알반 게르하르트(지휘)

루빈스타인이 빚은 관현악의 매력을 2장의 CD에!
차이콥스키를 통해 안톤 루빈스타인에 대한 일화는 많이 접하지만, 실제로 루빈스타인의 작품을 접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음반은 루빈스타인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곡들을 선곡하여 1CD에는 발레음악, 첼로 협주곡 Op.63, 관현악 '돈키호테' Op.87을, 2CD에는 '승리 ' 서곡, 교향곡 2번 '바다' 등이 수록되어 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레퍼토리 발굴에 힘쓰는 엠데게가 부퍼탈 심포니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만든 수작의 앨범으로, 음향 역시 루빈스타인의 관현악을 느낄 수 있도록 최고의 음향을 제공한다. 러시아 특유의 굵은 선을 느끼고픈 마니아에게 적극 추천한다.

613 2011–2
리스트(10곡) · 사티(6곡) 모음곡
안드레아스 자이들(바이올린), 스테판 슐라이에르마허(피아노)

리스트와 사티의 공통분모를 탐색하다
'리스트(1811~1886)는 에릭 사티(1866~1925)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해설지(영 · 불 · 독)의 첫 문장이 두 음악가를 한데 묶은 이 음반을 흥미롭게 바라보게 한다. 리스트의 영향력이 20세기에 영향을 주었다는 음악사적 토대를 근거로 두 작곡가의 관계성을 찾는 음반. 사티의 '짐노페디'(1888)를 지나 리스트의 '자장가'(1881)로 음반이 끝을 맺을 때, 19세기 말에 공유된 낭만성으로 두 사람의 공통분모가 떠오르게 된다. 두 작곡가를 모른다 하여도 맑은 음향으로 빚은 23개의 트랙은 마치 영화음악처럼 낭만의 세계로 안내한다.

903 2004–6 [SACD]
바흐: 무반주 파르티타 2번 및 무반주 합창곡
게르투르트 쉴트(바이올린), 마리아 유겐센(지휘), 북독일연방 합창단

명작 샤콘으로 접근하는 바흐 음악의 비밀
'샤콘과 그 영향'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앨범은 게르투르트 쉴트의 바이올린이 선보이는 무반주 파르티타 2번 BWV1004의 주요곡(2~5트랙)거 샤콘(11트랙)이 중심을 잡고 있으며, 멘델스존이 바이올린 · 피아노 버전으로 편곡한 샤콘(16트랙)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쉴트의 연주는 '비탈리의 샤콘은 지상에서 천상으로, 바흐의 그것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샤콘에 영향받은 무반주 합창곡(6~10 · 12~15트랙)과 함께 하는 음반의 구성도 56분 동안 독특한 감상법을 제공한다. 해설지(영 · 불 · 독)에는 샤콘의 영향에 관한 이론이 담겨 있다.

903 2009–6 [SACD]
그라나도스: '스페인 무곡' 외 3곡
스티번 마촌다(기타)

탄생 150주년의 그라나도스를 기리다
스페인의 엔리크 그라나도스(1867~1916)는 피아노 연주와 작곡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이 음반은 그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음반으로 기타곡에 녹아든 스페인 민속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그라나도스의 작품 세계를 조명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스페인 무곡'과 '시적 왈츠' 등이 수록되어 있다. 연주를 맡은 스티번 마촌다는 엠데게 레이블에서 스카를라티와 알베니즈의 앨범을 취입하여 주목을 끈, 바로크부터 현대음악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기타리스트. 엠데게가 자랑하는 멀티채널 레코딩(2+2+2 Recoding)의 청량함 속에서 그의 기타소리가 섬세히 퍼져나간다.

903 1999–6 [SACD]
IN SEARCH OF FREEDOM
베를라허 색소폰 4중주단

현대음악과 색소폰에 '자유'를 허하라!
소프라노 · 알토 · 테너 · 바리톤 색소폰으로 구성된 베를라허 색소폰 4중주단은 2008년 암스테르담을 기점으로 창단되었다. 바일, 쇼스타코비치, 아르보 패르트, 슐호프, 아이슬러의 실내악 및 관현악곡을 편곡하여 수록한 이 앨범은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예술관을 생존시켰던 이들의 음악을 선곡한 것이다. 그래서 '자유의 탐구 속에서'라는 부제가 붙었다. 곡에 내재된 현대음악적 주법과 이를 능숙히 처리하는 연주자들의 기교가 놀랍도록 맞물려 있다.

903 2013–6 [SACD]
슈베르트: 피아노 트리오 2번 외
리비아 셀린(바이올린), 필립 콤플러이(첼로), 쳉쳉 차오(피아노)

젊음을 걸고 내세운 슈베트르 피아노 트리오의 진가
알바란 이탈리아어로 일출, 새벽 등을 뜻하며,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D.929에 영감을 주기도 했다. 트리오 알바(Alba)의 주특기는 슈베르트. 2012년 '슈베르트와 현대음악' 국제 콩쿠르에서 이들의 연주는 전문가와 관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오스트리아 그라츠와 빈 등에서 데뷔 공연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음반에는 슈베르트의 대표적인 피아노 트리오 D.929와 비슷한 시기에 작곡된 노투르노 D.8970이 수록되었다. 엠데게가 자랑하는 멀티채널 레코딩(2+2+2 Recoding)으로 트리오 알바도, 슈베르트도 빛을 발한다.

903 2019–6 [SACD]
SZECHENYI: LIEDER
카타리나 루가베르(소프라노), 페터 타헬이메르(바리톤), 헬무트 도이치(피아노)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선물하고 싶다면
아름답고 환상적인 음반으로,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이 음반의 작곡가는 임레 세체니(1858~1905)다. 그는 외교관이자 작곡가로, 해외 경험을 통해 체득한 국제주의적 감각을 그의 음악에 녹여 넣었고, 수록된 22곡의 가곡들을 통하여 그의 다양한 스타일을 접할 수 있다. 노래 역시 프랑스어, 독일어 등의 가사로 되어 있다(해설지에 가사 수록). 카타리나 루가베르의 노래는 한없이 부드럽고 서정적이다(바리톤 페터 타헬이메르의 노래는 9 · 14 · 20 · 21번). 잘 몰랐던 작곡가에 대한 발견으로 이어지는 경이로움과 맑은 유리잔에 담긴 정화수 같은 깨끗한 음향이 일품이다.

904 2003-6 [SACD]
그라나도스: 피아노 작품집
마리아 루이자 칸토스(피아노)

스페인 피아노계의 대모 마리아 루이자 칸토스가 연주하는 그라나도스

국내에는 덜 알려져있는 편이지만 바르셀로나 출신 피아니스트 마리아 루이자 칸토스는 매우 독보적인 입지를 지닌 피아니스트이다. 스페인 음악 스페셜리스트이자 전문 연구자로서 그녀는 스위스에 스페인 음악의 해석에 관한 국제 학회를 79년부터 창립하여 파야, 그라나도스, 몸포우, 그라나도스, 닌-쿨멜의 작품들을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했다. 그라나도스의 매력은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에스닉한 향취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피레네 산맥 너머의 쇼팽으로 불러도 좋을 만큼 우수와 서정미가 물씬 느껴지는 아름다운 선율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MDG 특유의 크리스털 같이 청량한 음질로 그라나도스의 작품세계를 느껴볼 수 있다.

917 2010-6 [SACD]
바버: 오르간 작품집
루돌프 인니히(오르간)

오르간으로 접하는 바버의 낭만과 숭고미 루돌프 인니히는 메시앙, 슈만, 브람스, 멘델스존, 노보비에스키, 라흐니 등의 작품을 발굴하여 엠데게 레이블에서 총 12종 이상의 앨범을 발매한 간판스타 오르가니스트다. 10세 때, 오페라를 썼던 사무엘 바버는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던 중에 다른 분야로 입지를 넓힌 작곡가다. 루돌프 인니히의 연주는 바버의 음악적 삶과 그의 오르간 독주곡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엠데게 레이블 특유의 멀티채널 레코딩(2+2+2 Recoding) 기법과 만나 유럽 고(古)성당의 울림과 품위를 주며, '현을 위한 아다지오'의 편곡버전(13트랙)은 숭고미를 느끼게 한다.

937 2006-6 [SACD]
R. 슈트라우스, 슈미트: 축전서곡, 교향곡 2번
슈테판 블루니에(지휘),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귀를 자극하는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선율

작년 인상적인 베토벤 교향곡 치클루스를 남겼던 슈테판 블루니에와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의 신보가 발매됐다. 새로운 시도로 멋진 작품을 발굴하는 이들답게 잘 연주되지 않는 R. 슈트라우스의 축전서곡과 슈미트의 교향곡 2번을 녹음했다. 슈트라우스의 축전서곡은 작품성과 스케일 면에서 알프스 교향곡을 연상시키는 널찍한 스케일의 작품이다. 약동하는 선율과 배면의 오르간이 후반부로 진입할수록 멋진 장면을 연출한다. 슈미트의 교향곡 2번 역시 오르간이 사용된 작품으로 최후의 후기낭만주의자다운 다양한 악상과 스케일이 넘치는 관현악적 쾌감을 선사한다.

930 2007-6 [SACD]
드보르자크: 슬라브 무곡 Op.46, 교향곡 9번
트렌크너 / 슈파이델 피아노 듀오

네 손 반주로 듣는 드보르자크

독일의 피아노 앙상블인 트렌크너와 슈파이델 듀오가 연주한 드보르자크 네 손을 위한 피아노 버전 앨범이 발매됐다. 전문 듀오 연주자로서 특히 베토벤 말러, 브루크너, 스메타나, 스트라빈스키 같은 대편성 관현악 작품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단체로 유럽 음악평론계의 황제인 요아힘 카이저는 그들이 연주하는 네 손 버전의 말러 교향곡 6번을 불레즈, 번스타인의 연주와 함께 최상의 연주로 손꼽기도 했다. 이번 앨범에서는 드보르자크의 대표적인 작품인 슬라브 무곡 46번과 교향곡 9번이 수록되어있는데 슬라브 무곡 특유의 에스닉한 매력이 1901년 산 스타인웨이 콘서트 그랜드 피아노 D의 울림 넉넉한 소리로 그려진다.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은 특히 느린 악장에서 부서질 듯 섬세하게 그려지는 아련한 감성이 압권이다. 교향곡에서는 찾기 힘들었던 음표의 이면을 아름답게 그려주는 연주들이다.

942 2017-6 [SACD]
헤르조겐베르그: 피아노 트리오 1 · 2번
비엔나 트리오(다비드 맥캐럴(바이올린), 마티아스 그레틀러(첼로), 스테판 멘들(피아노))

열정으로 발굴한 명작에, 명연의 빛을 쏘다

하인리히 폰 헤르조겐베르그(1843~1900)의 창작력은 피아노 트리오 1번 Op.24, 2번 Op.36에서 결실을 맺었다. 재능이 넘쳤던 헤르조겐베르그는 바그너를 모델로 한 대형 작품으로 고향 그라츠에서 성공을 거둔 후, 브람스에게 돌아왔을 땐 창작의 고갈을 느끼고 있었다. 창작의 수면기를 벗어나 작곡한 두 곡을 해석하는 비엔나 피아노 트리오의 현과 건반은 광명으로 가득 차 있다. 밝고 힘차면서도 포근한 연주. 엠데게의 음향은 이러한 분위기를 성실하고 세심히 담고 있다. 엠데게에서 베토벤, 브람스, 스메타나, 차이콥스키, 하이든의 음반을 낸 트리오인만큼 노련미가 돋보이는 수작의 음반이다.

Naxos www.naxos.com

8573465
드비엔느: 플루트 협주곡 3집(9-12번)
패트릭 갈루아(플루트), 스위스 챔버 오케스트라(연주)

정열과 화려함의 극치, 드비엔느 만년의 걸작

패트릭 갈루아의 드비엔느 플루트 협주곡 시리즈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1집(8.573230)과 2집(8.573464)의 품격 있고 우아한 분위기와 선율에 이어 3집(9-12번)에는 화려하고 정열적인 분위기 그리고 현란한 기교의 극치가 담겨 있다. 생전에 오페라 작곡가로 명성을 얻었던 드비엔느였지만, 그의 본령은 일생동안 작곡한 다른 어떤 작품들 보다 플루트 작품들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시종일관 고조된 분위기를 유지하는 패트릭 갈루아의 노련한 손길과 흠잡을 곳 없는 연주, 깔끔한 음향이 압권이다.

8573477
생상스: 피아노 협주곡 3번 & '오베르뉴 광시곡' & '아프리카' & '웨딩케이크'
로맹 데샤르므(피아노), 말뫼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마르크 수스트로(지휘)

넘실거리는 열정을 보듬는 날렵하고 섬세한 터치

생상스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을 조명하는 시리즈 두 번째 음반에는 새로운 음악적 요소에 대한 열정이 담긴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그 중에서도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은 작곡가의 새로운 시도와 과감한 기교, 낭만적인 서정이 담긴 야심작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다른 4곡의 피아노 협주곡에 비해 큰 인기를 얻지 못했다. 1집(8.573476)의 연장선 위에 있는 로맹 데샤르므의 예리하고 날렵한 터치는 파도와 바람이 넘실거리는 해변의 풍경을 연상시킨다. 작품의 특징적인 매력을 담뿍 느낄 수 있는 멋진 음반이다.

8573682
메시앙: 영광의 몸 & 성령강림주일 예배 (펜테코스테 미사)
톰 윈페니(오르간)

메시앙 오르간 작품의 정수

낙소스 레이블을 통해 말콤 윌리엄스, 윌리엄 마티아스, 존 루터 등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톰 윈페니의 신보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인상, 부활의 여정을 담은 '영광의 몸'은 성경에서 묘사된 태초의 순간을 연상시키듯 고요하면서도 극적이다. 성령강림의 황홀한 순간을 묘사한 '성령강림절 미사'는 메시앙 자신이 회고하듯 오르간 작품의 절정을 이루는 작품이다. 메시앙 또는 메시앙과 관련된 작곡가의 작품에서 인상적인 연주를 보여준 톰 윈페니는 빛과 공기의 흐름, 새소리 기법 등 메시앙의 독특한 색채를 멋지게 표현하고 있다.

8573761
첼로와 기타를 위한 작품집
빌라-로보스 듀오(연주)

목소리를 닮은 두 악기의 교감

두산 보그다노비치를 비롯해 라틴 아메리카와 동유럽 작곡가들은 다른 악기와의 어울림을 통해 기타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본 음반의 기타와 첼로를 위한 작품들 역시 이러한 시도의 결과물이다. 기타와 첼로의 호흡은 밀롱가와 말람보 등 라틴 아메리카의 정열과 우수, 바르톡을 연상시키는 동유럽 민속 음악 요소를 아우른다. 때로는 역동적이고, 때로는 감미로운 목소리를 닮은 두 악기의 교감은 연인의 춤사위와 닮아 있다. 기타의 새로운 매력을 느껴보고 싶다면 감상을 추천한다.

***에드윈 게바라, '첼로와 기타를 위한 환상곡'(12-14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765
뉴질랜드 기타 작품 2집
군터 헤르비히(기타)
절묘하고 신비로운 분위기, 풍만한 색채감을 갖고 있는 뉴질랜드의 기타 음악
로날드 버트(1928–2007)이래 클래식 기타 음악의 한 장을 장식하고 있는 뉴질랜드 기타 음악을 조명하는 시리즈 두 번째 음반이다. 1집(8.572185)에 이어 데이비드 파쿠하르의 작품들(17세기 프랑스 백파이프에 바탕을 둔 '뮈제트'와 바르톡의 '어린이를 위하여'의 기타 편곡 버전)은 음반의 백미라 할 만큼 절묘하다. 풍만한 색채감과 신비로운 분위기로 가득한 존 엘름슬리와 브루스 페인의 작품들, 리틀 베리어를 모티브로 작곡된 존 림머의 '하우투루(Hauturu, 바람이 머무는 곳)'의 몽환적인 인상은 꿈결 같다.
****'핀치딘'(1번 트랙), '하우투루'(9번 트랙) 제외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780
야니브 도르, 가곡 리사이틀
야니브 도르(카운터 테너), 단 도이치(피아노)
사색의 행로를 노래하는 섬세하고 내밀한 음성
2016년 여름, 세파르디의 방황과 애환을 담은 카운터 테너 야니브 도르의 음반은(8.573566) 짙은 호소력으로 호평을 얻었다. 이번 신보에서 야니브 도르는 슈만의 '시인의 사랑'과 19–20세기 프랑스 가곡에 담긴 사색의 행로를 노래했다. 섬세하고 내밀한 음성으로 대하는 '시인의 사랑'은 시인의 여린 감성을 느낄 수 있어 새롭다. 짙은 여운 속에 흩어지는 드뷔시 가곡의 희끄무레한 빛의 인상, 의외의 재치에 놀라게 되는 풀랑의 '글을 쓰지 않나요?' 등 전작에서 느끼지 못했던 야니브 도르의 감성에 빠져들게 되는 음반이다.

970262
스티븐 도지슨: 하프시코드를 위한 23개의 인벤션
예카테리나 리키나(하프시코드)
하프시코드에 대한 스티븐 도지슨의 열정
기타 작품과 더불어 영국의 작곡가 스티븐 도지슨 작품 세계를 이루는 또 하나의 축은 하프시코드를 위한 작품이 아닐까 싶다. 본 음반에 수록된 '24개의 인벤션'은 스티븐 도지슨이 40여년에 걸쳐 작곡한 작품으로써 하프시코드에 대한 열정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작품은 전체적으로 스카를라티의 색채와 분위기를 기반으로 재즈에서 느낄 수 있을 법한 즉흥적인 요소를 더해 하프시코드의 표현력을 극대화하면서도 절제미를 잃지 않고 있다. 작품의 자유분방한 색채를 한껏 돋우는 예카테리나 리키나의 리드미컬한 연주가 인상적이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59822
랜달 톰슨: 교향곡 2번, 새뮤얼 애덤스: 표류와 섭리, 새뮤얼 바버: 교향곡 1번
내셔널 오케스트럴 인스티튜트 필하모닉(연주), 제임스 로스(지휘)
미국을 대표하는 세 명의 작곡가가 선사하는 미국 클래식 음악의 스펙트럼
2016년 6월 메릴랜드 대학의 클라리스 스미스 공연 예술 센터에서 열린 내셔널 오케스트럴 인스티튜트 필하모닉의 연주회 프로그램이 담긴 음반이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미국인 작곡가의 교향악 작품으로는 최초로 연주된 새뮤얼 바버의 '교향곡 1번', 재즈의 색채 위에 미 대륙의 인상이 표현된 랜달 톰슨의 '교향곡 1번', 태평양 바다 소리를 녹취한 후 이를 관현악으로 재현한 새뮤얼 애덤스의 '표류와 섭리'가 수록되어 있다. '표류와 섭리'에서는 작곡가 자신이 전자악기를 맡기도 했다. 음반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연주이다.

8559844
코플랜드: 교향곡 3번 & 3개의 라틴 아메리카 스케치
디드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레너드 슬래트킨(지휘)
광활하고 압도적인 환희, 세련된 여운
코플랜드의 '전시 교향곡'인 '교향곡 3번'에 대해 작곡가 자신은 2차 세계대전 종전의 기쁨을 반영하기 위해 작곡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3개의 라틴아메리카 스케치'는 코플랜드가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카를로스 차베스와 함께 멕시코의 클럽을 방문할 당시 얻었던 라틴 아메리카 음악의 인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슬래트킨이 표현하는 '교향곡 3번'의 드넓은 서정, 전쟁의 불안과 절망의 인상,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르'와 함께 맞이하는 환희는 광활하고 압도적이다. 코플랜드의 손을 거친 라틴 아메리카 민속 음악은 세련된 여운을 풍긴다.

8570620
원천 친(秦文琛): 관현악 작품집
멍라 황(바이올린), 리–웨이 친(秦立巍, 첼로), 치앤위앤 장(수르나이), 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고트프리트 라블(지휘)
대륙의 기상과 정서가 담긴 작품들
낙소스 레이블을 통해 현대 중국 작곡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고트프리트 라블은 내몽고 출신으로 현재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 중 한 사람인 원천 친(秦文琛)의 작품들을 조망했다. 중국 산간 지역의 민요를 소재로 작곡된 바이올린 협주곡 '산기슭'에는 소박한 정감이, 중국의 시인 하이즈(海子)의 시에 기초한 첼로 협주곡 '새벽(여명)'과 중국 전통 악기 수르나이를 위한 협주곡 'Calling for Phoenix(봉황을 소환함)'은 대륙의 기상이 물씬 담겨 있다. 수록된 작품들은 중국 경치가 담긴 파노라마 사진 한 장을 보는 듯하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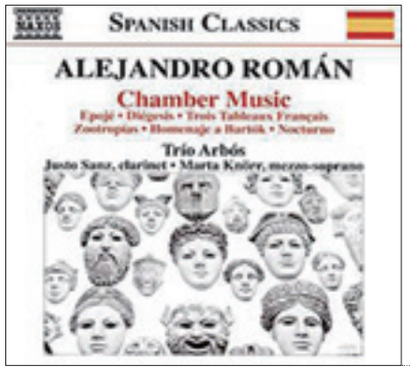
8559821
마크 노바코프스키: 현악사중주 1번 '용서의 노래', 현악사중주 2번 '할아버지의 노래들', '잊혀진 피', '자장가'
에밀리 온드레첵–페터슨(바이올린), 복사레 현악사중주단(연주)
비극의 역사를 딛고 희망을 염원함
미국의 작곡가 마크 노바코프스키의 각별한 염원이 담긴 음반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비극의 역사에 대한 탄식과 명상이 담긴 현악사중주 1번 '용서의 노래',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작품인 '잊혀진 피', 고레츠키에 대한 추모의 뜻과 마크 노바코프스키 가족이 부르는 폴란드 군가 'Hej hej u ɨ ani(이봐요, 이봐요, 울란스–창기병)'가 담긴 현악사중주 2번 '할아버지의 노래들' 등으로 구성된 작품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 개봉된 영화 '바르샤바 1944'의 마지막 몇 분을 연상시킨다.

8573590
스카를라티: 건반소나타 19집
고란 필리펙(피아노)
세밀하고 따뜻한 터치, 화려한 색채와 매력적인 윤기
도메니코 스카를라티가 그의 학생이자 후원자인 마리아 바르바라 공주를 위해 작곡한 555여곡의 건반소나타는 독창적인 영감의 결정체로 남아있다. 크로아티아 출신 피아니스트 고란 필리펙은 리스트의 '두 개의 파가니니연습곡'(8.573458)에 이어 스카를라티의 건반소나타에 도전했다. 전작에 비해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갔기 때문에 다소 의아할지 모르겠으나 리스트에서 보여준 정확하고 자신감 넘치는 터치와 또렷한 울림, 여기에 화려한 색채와 매력적인 윤기를 더한 필리펙의 연주는 놀라울 정도의 만족감을 안겨준다. 적극 추천한다.

8573704
에밀 소레: 24개의 연습곡–카프리스(발췌)
나즈린 라쉬도바(바이올린)
더위를 식히는 한줄기 바람의 산뜻함
베리오의 제자이자 비외탕에 필적하는 벨기에 악파의 비르투오소 에밀 소레는 연주자뿐만 아니라 작곡가로서 익히 알려진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의 카덴차 외에도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들을 다수 작곡했다. '24개의 연습곡–카프리스'는 그의 제자이자 친구였던 마저리 헤이워드에게 헌정되었는데, 본 음반에는 그 중 1–7번이 수록되었다. 모슈코프스키의 작품(8.573410)에서 짙은 서정, 현란한 기교를 보여줬던 나즈린 라쉬도바의 연주는 더위를 식히는 한줄기 바람을 연상시키듯 매끈하고 산뜻하다. 감상을 권한다.

8573777
빌라 로보스: 교향곡 8 & 9 & 11번
상파울로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이삭 카라브체프스키(지휘)
말러의 인간적인 고뇌에 다가서려는 진심어린 연주
라틴아메리카 최고의 작곡가로서 빌라 로보스의 면모는 12개의 교향곡에서 발견할 수 있다. 빌라 로보스의 교향곡 시리즈에서 주목할 만한 연주를 보여주고 있는 이삭 카라브체스키의 신보에는 상파울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녹음한 빌라 로보스 교향곡 8 & 9 & 11번이 담겨 있다. 작품은 각각 뉴욕 타임즈의 음악 평론가인 올린 다운스, 아내 아르민다(민딘하), 세르게이 쿠세비츠키에 헌정되었다. 신고전주의적 요소, 간결하고 투명하면서도 직선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작품의 색채를 한껏 살린 악단의 연주는 전작들과 어깨를 견줄 만하다.

8573797
제이비어 제라: 기타 연주집(2016년 GFA 국제 기타 콩쿠르 우승 기념 음반)
제이비어 제라(기타)
풋풋한 질풍노도의 열정
2016년 GFA 국제 기타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미국 출신 기타리스트 제이비어 제라의 기념 음반이다. 12살부터 기타를 시작한 그는 2015년 도쿄 국제 기타 콩쿠르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일본에서 연주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우승 기념 음반답게 음반은 다울랜드와 쿠프랭에서부터 두샨 보그다노비치, 제레미 콜린스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서정적이며 기교를 요하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풋풋하고 사색적이면서도 때로는 질풍노도의 열정(제레미 콜린스의 '엘레지')을 보여주는 연주자의 매력이 듬뿍 담긴 음반이다.



8579007
알레한드로 로만: 실내악 작품집
후스토 산스(클라리넷), 마르타 노르(메조 소프라노), 트리오 아르보스(연주)
다양한 요소들의 어울림이 만들어 내는 독특한 색채
스페인의 작곡가 알레한드로 로만 작품 세계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음반이다. 그의 작품들은 재즈와 대중음악의 요소 위에 다양한 영감을 덧입히고 있다. 고대 그리스어 '에포게(판단중지)'에서 영감을 얻은 '에포헤'와 '3개의 프랑스 동화'는 인상주의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고대 그리스어 '디에게시스(서술자에 의한 서술)'의 영감이 반영된 '디에헤시스', 초기 애니메이션 기구인 조에트로스의 인상이 표현된 '소트로피아스' 등 수록 작품들의 낯익은 듯 독특한 인상들은 호기심을 자아낸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9013
짤막한 실내악 작품집
아라벨라 현악사중주단(연주)
스쳐가는 순간들, 기억의 조각들
짤막한 실내악 작품들이 수록된 이색적인 음반이다. 1962년에 이르러 재조명된 안톤 베베른의 '느린 악장', 올루프 하르트만과 작곡가 자신의 장례식에 쓰인 닐센의 '젊은 예술가의 관 옆에서', 푸치니가 '마농레스코' 한 부분을 현악사중주로 편곡한 '크리산테미(국화)', 바흐에게 바치는 푸가가 담긴 멘델스존의 '카프리치오(op.81–3)'등 수록된 작품들은 작곡가들의 대표작의 반열에 올라있지는 않지만, 작곡가의 삶 또는 다른 작품과 연관을 맺고 있거나 작곡가의 사후 재발견된 것 들이다. 스치는 순간들, 기억의 조각들은 작지만 각별하다.

Ondine www.ondine.net

ODE1295–2
브람스: 사랑의 노래
라트비아 라디오 합창단(합창), 다체 클라바 & 알리스 리핀스(피아노), 지그바르츠 클라바(지휘)
오월의 노래, 사랑의 노래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된 에릭 에센발즈의 '누가수난곡'(ODE 1247–2)에 이어 지그바르츠 클라바가 이끄는 라트비아 라디오 합창단은 브람스의 합창 작품들을 담았다. '2개의 4중창(Op.64)', '4개의 사중창(Op.92)', 익히 유명한 '사랑의 노래–왈츠'와 '새로운 사랑의 노래' 등 브람스 '5월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들의 연주는 더없이 순박하고 친밀하다. '사랑의 노래–왈츠'와 '새로운 사랑의 노래'의 빈 왈츠 리듬과 유럽 각지 전통 민요의 뉘앙스는 싱그러움을 더한다. 만남의 기쁨과 설레임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은 음반이다.

Orchid *www.orchidclassics.com*

ORC100066
코른골트: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존 애덤스: 바이올린 협주곡
일랴 그린골츠(바이올린), 코펜하겐 필, 산투-마티아스 루발리(지휘), 율리엔 살렘쿠르(지휘)
파스텔 톤의 화사한 배경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춤추는 명장면
포스트미니멀리즘 작곡가인 존 애덤스는 단순하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넘실대는 바다와 같이 반복과 변화를 거듭하는 관현악을 배경으로, 바이올린이 즉흥연주와 같이 자유롭고 기교적인 멜로디를 흘려보내는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듣고 있으면 그만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깨닫게 된다. 코른골트는 헐리우드 영화음악의 거장으로, 서정적인 아름다운 선율과 감성적인 화음이 가득한 〈바이올린 협주곡〉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린골츠는 완벽한 기교로 극적 표현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코펜하겐 필은 각 장면의 배경을 파스텔 톤으로 그린다.

ORC100047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 가브리엘라 몬테로: Ex Patria & In Memoriam
가브리엘라 몬테로(피아노), 아메리카 YOA 오케스트라(연주), 카를로스 미구엘 프리에토(지휘)
가늠할 수 없는 에너지, 즉흥의 묘미
아르헤리치와의 인연, 최근 내한 공연으로 익숙한 가브리엘라 몬테로의 신보이다. 독주 위주의 이전 음반들과는 달리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 담긴 신보에서 그녀는 선 굵고 명쾌한 연주로 다시 한 번 자신의 인상을 각인시키고 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에서는 뒤이어 등장할 작품들의 색채를 예고하듯 거침없는 전개, 명쾌한 터치, 역동적인 에너지를 내뿜는다. 특유의 즉흥 연주가 빛을 발하는 'Ex Patria'는 러시아적인 서정 위에 펼쳐지는 예측 불허의 짜릿한 매력으로 가득하다. 놓칠 수 없는 연주, 적극 추천한다.

ORC100061
라벨: 피아노 작품집
스튜어트 굿이어(피아노)
라벨에 얽힌 자전적 이야기
캐나다 출신 피아니스트 스튜어트 굿이어는 베토벤과 라흐마니노프의 녹음으로 주노 어워드(Juno Award)에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자신이 편곡한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으로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2015년 베스트 클래식 음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본 음반은 그가 5살 때 처음 접한 이후부터 가슴 한 켠에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는 라벨의 피아노 작품을 모티브로 써 내려간 자전적 이야기이다. 색채의 대비보다는 역동적인 해석을 통해 인상을 표현하는 그의 연주는 작품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어릴 적 열정이 묻어난다.

OUR Recordings *www.dacapo-records.dk/en/*

6.220618 [SACD]
브라질 풍경
미칼라 페트리(리코더), 마릴린 마주르(타악기), 다니엘 무라이(기타)
다른 영역에서 활동했던 세 명의 거장이 함께 노래하는 브라질의 본능과 영혼
이러한 조합을 누가 상상할 수 있을까? 최고의 리코더 연주자와 정상의 재즈 퍼커셔니스트, 그리고 브라질에서 첫 손 꼽는 기타리스트, 이들이 만드는 브라질 음악은 이국적이면서도 클래식하며, 현대적이면서도 감각적이다. 대중음악 스타인 조빔의 애수어린 감성적인 멜로디 '마리아를 보라'(암파루)와, 현란한 리듬과 즉흥적인 선율이 노니는 나사레트의 '폰-폰', 그리고 감각적인 리듬 위에 펼쳐지는 현대적인 자유분방함이 매력적인 브라질의 거장 빌라-로부스의 '쇼로스' 등 다양한 브라질 태생의 음악들이 이 한 장의 앨범에 수록되어있다.

Resonus *www.resonusclassics.com*

영국에 기반을 두고 2011년 봄에 설립된 클래식 레이블 **Resonus Classics는** 영국과 네덜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호주, 미국 등의 여러 뛰어난 음악가들과 함께 다양하고 폭넓은 레퍼토리를 고품질로 녹음하여 명성을 얻고 있다. 음반 수집가와 오디오 애호가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까지 만족시키기 위해 정상급 예술가와 도전적인 레퍼토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장르와 시대를 망라하며 매년 최소 25개의 앨범을 발표하면서 르네상스부터 현재까지 망라하는 앨범 목록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 녹음도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Resonus는 최고점과 에디터스 초이스를 받은 음반이 늘어가고 있으며, 평론가들로부터 많은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RES10120 [2 For 1.5]
J.S. 바흐: 클라이버 위붕 3권
스티븐 파(오르간)
선율을 다루는 거장의 솜씨가 담겨진 오르간 음악의 보고
스티븐 파는 런던의 나이츠브리지 성 바울 교회의 음악감독으로, 캠브리지의 트리니티 컬리지에 있는 메츨러 오르간을 연주했다. 이 오르간은 1975년에 건조되었지만 1694년과 1708년에 스미스 신부에 의해 제작된 파이프가 일부 사용되어 옛 사운드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깃들어있다. J.S. 바흐의 '클라이버 위붕 3권'은 1739년 후반에 처음으로 인쇄되었다. 이 악보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주로 기존의 성가를 건반을 위해 편곡한 것이며, 일부 창작곡이 수록되었다. 오르간 연습곡으로서 다양한 규모와 음색을 들려주는 오르간 음악의 보고이다.

RES10142

헨델, A. 스카를라티, 로티: 소프라노 칸타타/ 만치니: 리코더 소나타 1번 등

에밀리 앳킨스(소프라노), 콘첸투스 VII

노래와 기악과 혼연일체가 되어 만드는 최고의 앙상블

17세기 후반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은 음악가의 후원자였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를 기리는 의미에서 1690년 로마에 '아르카디아 아카데미'가 설립되었다. 헨델은 젊은 시절 이탈리아에 있을 때 이 아카데미를 방문하여 회원이었던 A. 스카를라디와 함께 활동했다. 이 음반에는 이 두 작곡가의 소프라노 칸타타와 동시대의 작곡가인 만치니와 로티의 작품을 수록했다. 에밀리 앳킨스는 뉴욕과 런던에서 공부하고 바로크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로, 자연스러운 멜리스마를 구사하며, 기악과 혼연일체가 되어 최고의 앙상블을 만들어낸다.

RES10145

라모: 플라테 모음곡/ 쿠프랭: 파르나스의 평화/ 르 루: 모음곡 F장조

길레르모 브라케타, 메노 판 델프트(하프시코드)

음악적 재치와 극적인 대비 등 프랑스 극음악의 걸작들

장-필리프 라모는 이탈리아 스타일의 오페라를 지지했던 작곡가로, 흥미로운 오페라를 다수 남겼다. 그의 오페라는 희극부터 비극까지 다양하며, 대규모의 작품들이 많았다. 제우스와 개구리인 플라테의 가짜 결혼식을 소재로 하는 '플라테'는 가벼운 희극으로, 프롤로그가 있는 3막의 규모 안에 재치 있는 음악으로 가득하다. 길레르모 브라케타는 이 곡을 두 대의 하프시코드를 위한 모음곡으로 편곡했으며, 이 음반에서 자신의 스승인 메노 판 델프트와 함께 연주한다. 쿠프랭의 '파르나스의 평화' 또한 극적인 대비가 풍부한 프랑스 바로크의 걸작이다.

RES10153

갈래: '사랑의 묘약' 환상곡, '노르마' 주제에 의한 화려한 환상곡 등

아네카 스콧(내추럴 혼), 루시 크로(소프라노),
스티븐 드바인(피아노)

200년 전 작곡가가 들었을 사운드로 듣는 소중한 기회

19세기에 오페라는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며 절정의 시기를 맞았지만, 오페라가 자주 공연되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자주 갈 기회가 있는 사람 또한 많지 않았다. 그래서 오페라의 유명 선율을 간단한 기악곡으로 편곡하여 연주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졌다. 갈레는 혼을 위해 도니체티의 '사랑의 묘약', 벨리니의 '노르마' 등 여러 곡을 편곡했으며, 이 음반에 아홉 곡이 수록되었다. 특히 아네카 스콧은 갈레가 활동할 시기인 1823년에 제작된 네추럴 혼으로, 스티븐 드바인은 1851년에 제작한 에라르 피아노로 연주하여 작곡가가 들었을 사운드를 듣게 된다.

RES10172

모차르트: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K.358, K381, K521/ J.C. 바흐: 소나타 A장조

에마 아바테, 줄리언 퍼킨스(피아노)

19세기 초의 그랜드 피아노와 가정용 피아노가 들려주는 색다른 세계

에마 아바테는 길드홀 음악학교의 교수이며, 줄리언 퍼킨스는 캠브리지 헨델 오페라단의 음악감독이자 '사운즈 바로크'의 설립자/음악감독이다. 이 두 연주자는 모차르트의 소나타를 1815년에 요한 페터 프리츠가 제작한 그랜드 피아노로 연주했다. 이 악기는 18세기 중반에 등장했던 포르테피아노보다 비교적 공명이 풍부하여, 포르테피아노의 명징한 타건에 두터운 화음의 조화가 더해져 있다. J.C. 바흐의 소나타는 1805년에 안톤 발터가 제작한 단선 사각 피아노로 연주했다. 현이 하나씩 걸려있는 단선 피아노는 특유의 소박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RES10173

생상스: 피아노 삼중주 2번/ 라벨: 피아노 삼중주

피델리오 삼중주단

1900년 전과 후에 프랑스에서 탄생한 두 곡의 위대한 피아노 삼중주 작품들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거장 생상스는 '동물의 사육제'뿐만 아니라 교향곡과 교향시, 협주곡, 실내악, 독주곡,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많은 걸작을 남겼다. '피아노 삼중주 2번'은 실내악 장르에서 돋보이는 작품으로, 다섯 악장에 이르는 장대한 스케일과 풍부한 악상들, 그리고 완벽한 극적 구성을 보여주는 생상스의 역작이다. 라벨의 '피아노 삼중주'는 화려하고 환상적인 화음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라벨 특유의 낙천적인 기분으로 이끈다. 뛰어난 균형감각과 호흡을 자랑하는 피델리오 삼중주단의 세련된 연주는 이를 더욱 빛낸다.

RES10181

코다이: 이중주 Op. 7, 세레나데 Op. 12/ 도흐나니: 현악삼중주를 위한 세레나데

사이먼 스미스(바이올린), 클레어 헤이스(바이올린), 폴 실버손(비올라), 캐서린 젠킨슨(첼로)

영국의 실력파 연주자들이 선보이는 개성 넘치는 헝가리 작곡가들의 실내악곡

스미스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멤버이자 버밍엄 음악원 교수이며, 헤이스의 음반들은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실버손은 런던 심포니에서 15년간 비올라 수석이었으며, 중국 쑤저우 대학의 교수이고, 젠킨슨의 음반은 그라모폰과 스트라드로부터 '올 해의 음반'에 선정되기도 했다. 빈의 낭만음악에 심취한 도흐나니와 과감한 선율과 도발적인 화음을 사용한 코다이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지만, 이 네 명의 실력파 음악가들은 고급스러우면서도 감성적인 연주로 이 두 헝가리 작곡가의 독특한 개성을 부각시킨다.

RES10188

브람스: 첼로 소나타 1, 2번/ 슈만: 민속 풍의 다섯 개의 작품

로빈 마이클(첼로), 다니엘 통(피아노)

브람스가 연주했다고 알려진 블뤼트너 피아노의 명징하고 영롱한 사운드

로빈 마이클은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의 수석 첼리스트이자 파리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레시클 오케스트라의 솔리스트이며, 왕립음악원 교수이다. 다니엘 통은 버밍엄 음악원 교수이다. 이 두 음악가는 키노디 실내악 축제를 공동으로 설립했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로, 브람스와 슈만의 곡을 녹음한 이 음반은 이러한 그들의 조화로운 호흡을 들려준다. 특히 피아노는 브람스가 연주했다고 알려진 1897년에 제작된 블뤼트너 피아노로 연주하여, 특유의 명징하고 영롱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 첼로는 이 피아노의 음색과 어울려 고상한 기품이 있다.

RES10189

J.S. 바흐: 이탈리아 협주곡/ W.F. 바흐: 협주곡 G장조/ 그라운: 협주곡 A장조 등

길레르모 브라케타, 메노 판 델프트(하프시코드)

사람의 마음을 따라 흐르는 연주로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는 신세대의 연주

브라케타는 암스테르담 음악원에서 판 델프트로부터 배웠으며, 연주활동과 함께 악보 편집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판 델프트는 레온하르트, 판 아스페렌 등 거장으로부터 배웠으며, 1988년 CPE 바흐 콩쿠르에서 클라비코드 상을 수상하고, 현재는 암스테르담 음악원과 함부르크 음악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사제지간인 이 두 연주자는 J.S. 바흐와 그의 아들 중 가장 재능이 특출했던 W.F. 바흐, 그리고 그라운의 작품을 녹음했다. 브라케타의 연주는 선명하고 화려하며, 특히 자유로운 템포로 사람의 마음과 공명하며 감동의 물결을 일으킨다.

Toccata Classics

www.toccataclassics.com

TOCC 0265

탕스망: 노벨레테, 블루스 전주곡, 쉬운 소품집, 옛 풍의 춤 모음곡

대니 젤리버(피아노)

재즈 스타일 , 폴란드 스타일, 로맨틱 스타일 등 모든 것에 완벽했던 거장의 작품

알렉상드르 탕스망은 오늘날 프랑스 6인조를 언급할 때 언급되는 이름이 되었지만, 그는 수많은 작품을 남긴 다작가이자 프랑스에서 신고전주의 노선을 이끌던 거장이었다. 그럼에도 그의 작품목록에는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고 있어 그의 남다른 창작력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그가 폴란드 출신이라는 점도 작용하는데, 이 음반에 수록된 '유명한 폴란드 멜로디에 의한 20개의 쉬운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블루스 형식의 세 개의 전주곡'은 거슈윈의 전주곡을 연상케 하는 재즈 풍의 작품으로, 탕스망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TOCC 0356

엥글룬: 피아노 소나타 1번 등 피아노 전곡

라우라 미콜라(피아노)

진지하면서도 풍부한 음향으로 가득한 핀란드 거장의 내밀한 독백

에이나르 엥글룬은 시벨리우스 이후 라우타바라와 함께 핀란드의 가장 중요한 교향곡 작곡가로 손꼽힌다. 하지만 피아니스트 출신임에도 피아노 작품은 그리 많이 남기지 않았는데, 러시아와의 교전 중 손가락에 부상을 입어 피아니스트로서의 커리어를 접은 것이 이유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피아노 소나타'와 두 개의 소나티나는 프로코피에프를 연상케 하는 진지하면서도 풍부한 음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파반과 토카타'는 극적인 반전이 있는 내면의 드라마이며, 고대 이집트의 이야기를 다룬 '시누헤'는 세련된 이국적 향취가 매력적이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TOCC 0358

셸프: 클라리넷 소나타, 클라리넷 오중주, 클라리넷 사중주 등

베티나 바이겔베크(클라리넷), 부시 콜레기움 칼스루에

굳건한 에너지와 대위적인 흐름, 생명력 있는 리듬으로 구축된 독일적인 작품

요제프 셸프는 독일 남서부의 프랑스와 맞닿아있는 칼스루에에서 활동했던 작곡가로, 인상주의, 표현주의, 무조성 등 20세기 전반기의 주요 작곡기법을 섭렵했다. 하지만 그는 독일적인 고전음악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래서 그만의 탄탄한 음악들을 만들었다. 이 음반은 20세기 중반기의 완숙한 시절에 작곡된 클라리넷이 포함된 여러 실내악곡들을 수록했다. 이 작품들은 힌데미트와 베르크의 영향이 보이는 독일적인 작품들로, 굳건한 에너지와 대위적인 흐름, 그리고 생명력 있는 리듬으로 셸프의 음악세계를 펼쳐 보인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TOCC 0419

카그-엘러트: 실루엣, 포에지/ 시벨리우스: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안단테 칸타빌레

아니카 콘토리-구스타프손(피아노), 얀 레흐톨라(오르간)

피아노와 오르간의 상호보완적인 아름다운 앙상블

지크프리트 카그-엘러트는 오르가니스트이자 하모니움 연주로도 유명했다. 하모니움이란 풍금과 유사한 악기로, 19세기 후반기부터 거실이나 살롱에 보급되었다. 그래서 작곡가들이 이 악기를 위한 작품들을 작곡했는데, 카그-엘러트는 그 선구적인 인물이었다. 이 음반은 '실루엣' 등 그의 낭만적인 오리지널 작품과 시벨리우스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편곡 등 하모니움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수록했다. 악기는 보다 풍부하고 깊은 소리를 위해 하모니움 대신 오르간을 선택했으며, 피아노의 극적인 연주에 오르간이 화음으로 화답한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바이얼린 벨기에 악파 최후의 대표 바이얼리니스트 "롤라 보베스코"의 대표적인 녹음

Silkroad SRM035LP

[180g 슈퍼 LP 독일제작]

브람스: 바이얼린 협주곡과 소나타 C 단조

롤라 보베스코(바이얼린)

루마니아의 크라이오바 태생. 아버지 한테 처음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해 불과 6세 때 첫 콘서트를 가진 신동으로, 오늘날 처럼 미도리, 장영주 등이 없던 시절에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나타난 천부적 재능의 소유자였다. 어린 나이로 유럽 전역의 중요 도시에서 많은 연주를 해보였던 그녀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신동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파리 국립음악원에서 프랑스 악파의 두 거장인 마르셀 샤이유에와 쥘 부셰리에게 사사하였고, 그곳에서 불과 12세의 나이로 최우수 바이올린 상을 받았다. 그녀의 이력은 점점 더 화려해졌다. 1937년 브뤼셀의 유진 이자이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그녀는 최연소 수상자로 결정됨에 따라 그녀는 이제 명실공히 세계가 주목하는 괄목할만한 연주자로 급부상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그녀는 세계 최고의 악단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3번이나 초청 협연을 했고, 앙세르메, 첼리비다케, 켐페, 폰 마타치치 등 당대 최고의 지휘자들이 그녀를 불러 함께 연주했을 만큼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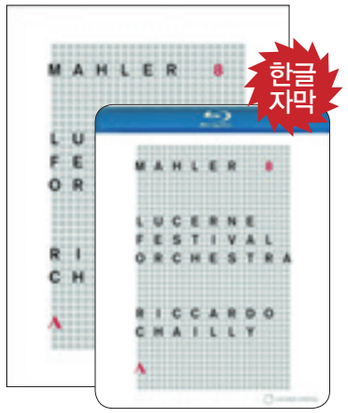
보베스코는 1980년 이래 그녀는 일본에서 정규적으로 협연하거나 독주회를 개최해왔다. 따라서 그녀는 최근에는 유럽 보다는 일본에서 더 유명한 음악가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녀는 일본 내에 중요한 팬 클럽까지 가지고 있으며, 그녀의 중요한 음반들은 일본의 킹 레코드를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물론 그녀의 레코딩 중의 몇몇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을 휩쓸기도 하였다.

우리에게는 많이 낯설기는 하지만 그녀는 유진 이자이 실내악단을 창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벨기에에서는 몇 년 동안 브뤼셀 왕립음악원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다.

그녀는 베리오(Bériot)에 의해 형성되었고, 비외땅, 이자이, 마르시크 그리고 그뤼미오를 잇는 벨기에 바이올린 악파의 최후의 대표자이다.

Accentus

www.accentus.com



Accentus ACC20390 [DVD]
Accentus ACC10390 [Blu-ray]

accentus music

2016 루체른 페스티벌
말러: 교향곡 8번 '천인'

리카르도 샤이(지휘),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리카르다 메르베스 · 율리안느 방쉐 · 안나 리흐테르(소프라노), 사라 민가르도 · 미호코 푸지무라(알토), 안드레아스 쉐거(테너), 피터 마티(바리톤), 사무엘 윤(베이스) 바이에른 방송합창단, 라트비안 방송합창단, 오르페온 도노스티아라, 뢸처 소년합창단

아바도에게 바치는 샤이의 '천인 교향곡'

2016년 8월 12일, 루체른 콘서트홀의 샤이 취임 콘서트로 루체른 KKL잘 실황이다. 아바도(1933~2014)가 서거한 이후, 그가 남긴 최고의 업적 중 하나는 수많은 음반과 함께 단연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다음 음악감독으로 샤이를 지목할 것일 거다. 아름답고 환상적인 무대가 선사하는 감동이 영상을 보는 내내 전해진다. 한국의 사무엘 윤도 절창을 이룬다. 피날레가 끝나고 벌렸던 두 손을 조용히 모으는 샤이의 모습은 저 세상에 있는 아바도의 평안을 비는 기도처럼 보인다. 그의 손이 다 내려가고서야 터져 박수는 루체른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듯하다. 30쪽 분량의 해설지에는 독일어 · 영어 · 프랑스 해설, 출연진과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오디오 옵션은 PCM스테레오/돌비 디지털 5.1/DTS 5.1이며, 가사는 독일어 · 영어 · 프랑스어 · 일본어 ·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로 되어 있다.

[보조자료]

– 리카르도 샤이는 클라우디오 아바도(1933~2014)의 뒤를 잇는 후임이자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감독으로 취임했다. 이 영상물은 2016년 8월 12일, 루체른 콘서트홀의 샤이 취임 콘서트로 루체른 KKL잘 실황이다.

– 아바도가 서거한 이후, 그가 남긴 최고의 업적 중 하나는 수많은 음반과 함께 단연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다음 음악감독으로 샤이를 지목할 것일 거다. 아바도가 라 스칼라의 지휘자로 있을 무렵 샤이는 부지휘자로 발탁되어 그와 함께 길을 간 적이 있다. 교향곡은 물론 오페라에서도 활동하는 전방위라는 점도 아바도와 닮았다. 그런 점에서 샤이가 첫 인사로 말러의 '천인 교향곡'을 선택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본다. 그의 선택과 예술적 표현은 그의 음악적 신념과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가 매우 존경하는 선배이자 동료인 '아바도를 위한 헌정'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 아름답고 환상적인 무대가 선사하는 감동이 영상을 보는 내내 전해진다. 한국의 사무엘 윤도 절창을 이룬다. 피날레가 끝나고 샤이의 손이 다 내려가고서야 터져 나오는 우레 같은 박수는 루체른 페스티벌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듯 하다. 결론이 나온다. 교향곡 형식의 경계와 한계를 무너뜨리는 말러의 실험 정신과 새로운 교향곡 시대를 열었던 이 작품을 통해 샤이 역시 모험과 새 출발의 정신을 보여주었다는 것.

– 30쪽 분량의 해설지에는 독일어 · 영어 · 프랑스 해설, 출연진과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오디오 옵션은 PCM스테레오/돌비 디지털 5.1/DTS 5.1이며, 가사는 독일어 · 영어 · 프랑스어 · 일본어 ·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로 되어 있다.

Accentus ACC20411 [DVD]
Accentus ACC10411 [Blu-ray]

베토벤: 삼중 협주곡 · 교향곡 5번 '운명'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지휘),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이자벨레 파우스트(바이올린), 쟝-기엔 케라스(첼로), 마르틴 헬름헨(피아노)

베토벤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지휘와 협연!

2017년 1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실황 영상물로 베토벤의 삼중 협주곡과 교향곡 5번 '운명'이 수록되었다. 베토벤의 삼중 협주곡(트리플 콘체르토)의 라이프치히 공식 초연 이후 약 200여 년이 흐른 2017년, 파우스트-케라스-헬름헨는 베토벤의 원석을 다듬는 예술적인 도전을 펼친다. 세 명의 솔리스트는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의 감성적인 지휘 아래 세련미와 음악적인 친밀감으로 연대하며, 오늘날 베토벤의 트리플 콘체르토가 과소평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낸다.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은 작곡가의 우주를 강렬하게 재연하며, 열정 어린 지휘는 베토벤 텍스처의 투명성을 잘 살려낸다. '무대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객석에 퍼진다'고 소문난 음향 게반트하우스의 음향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영상물.

[보조자료]

– 2017년 1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에서 있었던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b.1927) 지휘,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실황이다.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악단답게 홈페이지에 1781년부터 재직한 카펠마이스터를 띄워 놓았다. 블롬슈테트는 1998년부터 2005까지 제19대 카펠마이스터로 재직했다. 그는 재직 기간 동안 음악과 행정 모든 면에서 전권을 휘두르는 체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행정감독 제도를 신설하여 음악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런 그는 현재 2017/18 시즌부터 제21대 카펠마이스터로 이 악단을 이끄는 안드리스 넬손스와 함께 계관지휘자로 활동 중이다.

– 베토벤의 삼중 협주곡과 교향곡 5번 '운명'이 수록되었다. '트리플 콘체르토'로도 통하는 삼중 협주곡은 1804년 비공식적으로 초연되었고, 1808년 부활절 이전에 라이프치히에서 공식 초연되었다. 그로부터 200여 년이 흘렀다. 파우스트-케라스-헬름헨은 베토벤의 원석을 다듬는 예술적인 도전을 펼친다. 그들은 블롬슈테트의 감성적인 지휘 아래 세련미와 음악적인 친밀감으로 연대하며, 오늘날 베토벤의 트리플 콘체르토가 과소평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낸다.

– 베토벤의 교향곡 5번에서 블롬슈테트는 완전하게 새로운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한다. 베토벤의 우주를 강렬하게 재연하며, 열정 어린 지휘는 베토벤 텍스처의 투명성을 잘 살려낸다. '무대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객석에 퍼진다'고 소문난 음향 게반트하우스의 음향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영상물이다(PCM 스테레오/돌비 디지털 5.1/DTS 5.1 오디오 옵션).

[함께 추천하는 영상]

–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베토벤 교향곡 6번과 7번. 2015년 5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실황 (블루레이 ACC10413/DVD ACC20413)
–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2015년 12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실황 (블루레이 ACC 10381/DVD ACC 20381)

BelAir

www.belairclassiques.com

BelAir BAC141 [DVD]
BelAir BAC541 [Blu-ray]

BelAir classiques

2016 스웨덴 왕립 발레: '한여름밤의 꿈'

알렉산더 에크만(안무), 미가엘 칼송(음악), 안나 본 하우스볼프(노래)

스웨덴의 발레와 음악에 대한 재발견!

2016년 9월, 스웨덴 왕립 오페라에 오른 이 작품은 음악만 들어도 훌륭한데, 영상까지 함께 보면 더욱더 놀라게 된다. 영상의 각도와 기법 역시 기존의 카메라 워킹을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 한편의 영화이자, 발레를 소재로 한 뮤직비디오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한 남자가 잠들어 그의 꿈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들. 알렉산더 에크만의 안무만큼 이 영상물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스웨덴 왕립발레가 소화해내는 모던함과 세련됨, 그리고 이 작품의 음악을 맡고 있는 스웨덴의 영화음악가 미가엘 칼송의 음악들이다. 스웨덴의 유명 팝가수 안나 본 하우스볼프가 직접 출연하여 묘한 소리로 무대를 수놓는다. 오디오 옵션은 2.0 PCM/5.1 돌비. 알렉산더 에크만의 인터뷰 영상(17분, 자막 프랑스어)이 있다.

[보조자료]

– 그냥 음악만 들어도 훌륭한데, 영상까지 함께 보면 더욱더 놀란다. 영상의 각도와 기법 역시 기존의 카메라 워킹을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 한편의 영화이자, 발레를 소재로 한 뮤직비디오라고도 할 수 있겠다. 97분 동안, 당신이 음악만을 듣건, 집중하여 영상을 보든, 다 보고 나면 스웨덴 왕립 발레의 모던한 감각에 매료될 것은 확실하다.

– 요하네스 오만이 예술감독으로 재직 중인 스웨덴 왕립 발레의 '한여름 밤의 꿈'은 알렉산더 에크만이 안무한 것이다. 이 영상물은 2016년 9월 공연 실황이다. '한여름밤의 꿈'은 스칸디나비아 전통에서 하지(夏至)와 관련된 미스터리를 다루는 듯하다. 첫 장면에서 전통 농업 사회를 연상케 하듯 볏짚이 무용수들의 소품으로 나오고 그들은 음악에 맞춰 소리를 내고 움직임을 표현한다. 전통사회에서 농노들이 즐기는 파티 장면. 신나는 아이리시 음악에 맞춰 진행되는 군무. 거대한 테이블에 수십 명의 무용수들이 마주 앉아 즐기는 나른한 파티. 여성들의 신들린 듯한 군무 등 이 작품은 지극히 현대무용적인 움직임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을 연출해내는데 이국적이면서도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세련미를 제공한다. 첫 장면에서 남자 주인공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장면과 가장 후반에 그가 침대에서 깨어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이 한여름밤의 꿈이었음을 알려준다.

– 뭐니 뭐니 해도 '한여름밤의 꿈'에서 음악은 심장과도 같다. 율동과 음악의 싱크로율은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서도 음악은 유럽 전통의 춤곡과 민요 등을 바탕으로 칼송만의 미니멀한 문법으로 가다듬었다. 이 작품을 통해 스웨덴의 유명한 영화음악가로 활약하고 있는 칼송의 포트폴리오를 뒤져 보게 된다. 또한 스웨덴의 유명 팝가수 안나 본 하우스볼프가 직접 출연하여 묘한 소리로 무대를 수놓는다. 오디오 옵션은 2.0 PCM/5.1 돌비. 알렉산더 에크만의 인터뷰 영상(17분, 자막 프랑스어)이 있다.

[함께 추천하는 영상]

– 에크만의 안무와 칼송의 음악이 만난 명 발레작
노르웨이 국립발레의 '백조의 호수'
(2014년 오슬로 오페라하우스 실황, 알렉산더 에크만 안무) (Arthaus Musik 108116)

BelAir BAC143 [DVD]
BelAir BAC443 [Blu-ray]

2016 볼쇼이 발레의 쇼스타코비치 · 유리 그리고로비치 '황금시대'

유리 그리고로비치(재안무), 니나 카프소바(리타 역), 보리스(루슬란 스크보르소프 역)
파벨 클리니체프(지휘), 볼쇼이 극장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복원되며 더욱더 완벽의 옷을 입은 쇼스타코비치 발레음악

볼쇼이 발레가 2016년 10월,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선보인 유리 그리고로비치 · 쇼스타코비치의 '황금시대'. 젊은 여인 리타와 보리스의 사랑 이야기로, 주위의 갈등과 야비한 계략을 뛰어넘어 사랑을 이룬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1930년데 초연되었으나 18회 정도 상연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1982년, 볼쇼이 발레를 이끌던 그리고로비치가 재연한 작품이다. 원작은 퇴폐적인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갈등이었으나, 개작된 작품은 도덕적인 노동자와 사회 범죄자의 충돌을 다룬다. 쇼스타코비치의 영화음악과 피아노곡의 일부를 발췌하여 원곡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게끔 했다. 클럽 '황금시대'에서 벌어지는 여러 춤을 보여주는 장면에는 찰스턴(미국 흑인들이 추는 춤의 일종), 폭스 트로트(빠른 스텝의 사교춤), 탱고 등의 스텝이 나와 눈길을 끈다.

[보조자료]

– 볼쇼이 발레가 2016년 10월,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선보인 유리 그리고로비치 · 쇼스타코비치의 '황금시대'다. 쇼스타코비치가 작곡한 이 작품은 현대적이고 선지적인 작품으로 1930년에 만들어졌다.

–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부터 6여 년이 흐른 1923년경, 흑해 연안의 한 작은 거리. 축제 속에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한다. 그 가운데 리타가 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클럽 '황금시대'에서 무용수로 일하고 있다. 그곳에 젊은 어부들이 나타나 젊은 기운이 넘쳐나는 춤들을 보여준다. 보리스는 그 중의 한명이다. 리타와 보리스는 서로에게 끌리게 된다.

– 한편, 클럽 '황금시대'는 돈 좀 있는 상인이나 갱들로 붐빈다. 그 중에는 리타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갱두목 야쉬카도 있다. 리타와 보리스의 다정한 모습을 본 야쉬카는 클럽의 호스티스인 류스카와 짜고 그들을 방해하려 한다. 그는 보리스를 해치고 리타를 납치하기 위해 폭력배들을 동원하지만 이 과정에서 류스카가 죽게 되고 보리스와 젊은 어부들은 이들을 물리친다. 리타와 보리스는 사랑의 결실을 맺고 모든 이들의 환호 속에 막을 내린다.

– '황금시대'는 1930년데 초연되었으나 18회 정도 상연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52년이 지난 1982년, 볼쇼이 발레를 이끌던 그리고로비치는 각본가 글리크먼과 함께 새로운 대본을 완성했다. 퇴폐적인 부르주아와 그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전투, 그리고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를 다룬 원작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노동자와 사회 범죄자의 충돌로 재구성되었다. 또한 음악을 다듬고, 쇼스타코비치의 제자인 바스넬로로 하여금 쇼스타코비치의 영화음악과 피아노곡의 일부를 발췌하여 원곡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게끔 했다.

– 클럽 '황금시대'에서 벌어지는 여러 춤을 보여주는 장면에는 찰스턴(미국 흑인들이 추는 춤의 일종), 폭스 트로트(빠른 스텝의 사교춤), 탱고 등의 스텝이 나온다. 시몬 비르살라드제의 무대미술과 의상은 화려하고 다양하며 사실적이다. 오디오 옵션은 PCM 스테레오/돌비 디지털 5.1이다.

BelAir BAC301 [DVD]

볼쇼이 발레의 마리우스 프티파 안무작 '파라오의 딸'

스베틀라나 자하로바(아스피키아), 세르게이 필린(윌슨 경/타올), 마리아 알렉산드로바(람즈), 게나디 야닌(존 불/파시폰테) 알렉산더 소트니코프(지휘),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

최고무용수들의 무대로 다시 만나는 프티파의 유산

수에즈 운하 개통 기념을 위해 마리우스 프티파(1818~1910)는 40일 만에 3막 구성의 '파라오의 딸'을 1862년 세상에 내놓는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 작품을 피에르 라코트(b.1932)가 복원 · 개작하여 2003년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 새롭게 선보였다. 이 영상물은 이 공연 실황이다. 고티에(1811~1872)의 소설 '미이라의 사랑'을 원작으로 한 '파라오의 딸'은 영국인 윌슨이 이집트 여행 중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그는 타오르로 변한 채, 파라오의 딸 아스피키아 공주와 사랑에 빠지고 다시 꿈에서 깨어나는 내용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 현재도 수석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1989년 생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의 아름다운 몸짓, 2011년부터 볼쇼이발레의 예술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는 세르게이 필린이 연기하고 춤추는 타오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영상물. 라코테의 인터뷰로 진행되는 29분 분량의 동영상(프랑스어 진행. 자막은 영어 · 독일어 · 스페인어)이 수록되어 있으며, 해설서는 영어 · 프랑스어.

[보조자료]

– 마리우스 프티파(1818~1910)는 단 40일 만에 무대장치, 의상 등 모든 것을 준비한 후 1862년 3막으로 구성된 '파라오의 딸'을 초연한다. 수에즈 운하 개통 기념으로 만든 이 작품의 음악은 체자레 푸니가 작곡했다. 이 영상물은 피에르 라코트(b.1932)가 복원 · 개작한 작품으로, 2003년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 오른 공연 실황물. '지젤'의 원작자이자 시인이며 소설가인 테오필 고티에(1811~1872)의 소설 '미이라의 사랑'에서 줄거리를 따왔는데, 영국인 윌슨이 이집트 여행 중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 상인들과 아편을 나눠 피고 꾸는 꿈이 전반적인 내용이다.

– 1막: 영국의 영주 윌슨은 이집트 탐험을 하던 중에 잠든 그는 꿈속에서 아름다운 파라오의 딸 아스피키아를 우연히 보게 된다. 꿈속에서 윌슨은 타오르라는 이름의 이집트 청년으로 변해 있었고, 하인 존 불 역시 파시폰테라는 이름의 이집트인으로 변해 있다. 아스피키아 공주는 타오르와 사랑에 빠지지만 그녀에겐 정략 결혼이 기다리고 있다. 두 사람은 아스피키아 공주의 하녀인 람즈를 공주로 위장시켜 두고 왕궁을 빠져나온다.

– 2막: 공주와 타오르의 행복한 일상. 그러나 타오르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공주를 찾으러 온 군사들이 들이닥친다. 이를 피하려던 공주는 막다른 길에 이르자 강물에 몸을 던지고 만다.

– 3막: 나일강의 신에게 아스피키아가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자, 신은 그녀를 다시 이승으로 보내준다. 살아 돌아온 공주는 타오르와 재회한다. 파라오는 아름다운 연인을 위한 성대한 파티를 연다. 그리고 타오르는 다시 현실 속의 윌슨으로 돌아와 있다.

– 현재도 볼쇼이 발레의 수석무용수로 활동하는 1989년생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의 아름다운 몸짓, 2011년부터 예술감독직을 맡은 세르게이 필린이 연기하고 춤추는 타오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영상물. 러시아 발레의 웅장함과 화려한 장치, 정교한 의상을 맛보고 싶은 이에게 적극 추천한다. 공연은 101분. 피에르 라코테의 인터뷰로 진행되는 29분 분량의 동영상(프랑스어 진행. 자막은 영어 · 독일어 · 스페인어)도 수록되어 있다. 해설서는 영어, 프랑스어. (DVD는 2.0PCM과 5.1DTS 지원. 블루레이는 1080i와 5.1DTS HD Master Audio)

[함께 추천하는 영상]

– 볼쇼이발레의 간판스타 스베틀라나 자하로바가 오데트/오딜 역을 맡은 '백조의 호수' (BelAir BAC119)
– 스테블라나 자하로바가 레오니드 사라파노프와 함께 한 프티파 '해적'을 2015년 라 스칼라 '에투알 갈라' 실황으로 만날 수 있는 영상물 (OPUS ARTE OA1220

C Major

www.cmajor-entertainment.com

C Major 741008 [DVD]
C Major 741104 [Blu-ray]

브람스: 교향곡 전곡 1~4번

토마스 헹엘브로크(지휘), 북독일 방송교향악단

브람스 교향곡 전곡 연주에 '기준!'을 외치다

2017년 1월에 개관 공연을 가진 엘프 필하모니로 이전하기 전인 2016년, 토마스 헹엘브로크와 북독일 방송교향악단이 함부르크 라이스할레(Laeiszhalle)에서 선보인 브람스 교향곡 전곡 실황 영상물이다. 라이스할레는 엘프필하모니로 거처를 옮기기 전까지 이 악단의 주요 공연장으로 활용되었다. 이 악단은 브람스와 브루크너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예술적인 앙상블로 악단의 명성에 품질 보증마크를 찍고 있다. 2011년부터 상임으로 재직 중인 헹엘브로크는 무게감과 깊이감을 정확히 구현하고 있으며, 167분 동안 흐르는 4곡의 교향곡은 모두 다 한결 같은 두터움으로 귀를 두드린다. 43분 분량의 '브람스의 발견' 인터뷰도 흥미진진하다. 헹엘브로크는 브람스의 음악을 문학적이고, 때로는 객관적으로 해부한다. 영상물 자막은 영어 ·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로 되어 있다.

[보조자료]

– 2017년 1월에 개관 공연을 가진 엘프 필하모니로 이전하기 전인 2016년, 상임지휘자이자 함부르크 출신의 토마스 헹엘브로크와 북독일 방송교향악단(NDR Elbphilharmonie Orchester)이 함부르크 라이스 할레(Laeiszhalle)에서 선보인 브람스 교향곡 전곡 실황을 담은 영상물이다. 1908년에 건립된 라이스할레는 엘프필하모니로 거처를 옮기기 전까지 이 악단의 주요 공연장으로 활용되었다.

–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브람스는 이 오케스트라 역사에서 브루크너와 함께 중요시되는 작곡가로, 악단 역시 브람스 곡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예술적인 앙상블로 악단의 명성에 품질 보증마크를 찍고 있기 때문이다.

– 고전/낭만 시대의 독일과 오스트리아 음악과 텐슈테트(1979~1981), 귄터 반트(1982~1991), 존 엘리엇 가디너(1991~1994), 블롬슈테트(1996~1997), 크리스토프 에셴바흐(1998~2004), 도흐나니(2004~2011)가 거친 포디엄에 2011년부터 오르고 있는 헹엘브로크는 음향의 중후한 맛을 지켜낼 줄 안다. 그는 브람스의 무게감과 깊이감을 정확히 구현하고 있으며, 167분 동안 흐르는 4곡의 교향곡은 모두 한결 같은 두터움으로 귀를 두드린다.

– 보너스 트랙에 담긴 43분 분량의 '브람스의 발견' 영상도 흥미진진하다. "교향곡 1번은 자멸할 듯한 C단조이고, 2번은 즐거움 넘치는 D장조인데, 쫙 펼쳐진 듯한 아름다움을 주는 곡이죠." 헹엘브로크는 브람스의 음악을 문학적이고, 때로는 객관적으로 해부한다. 영상물의 자막은 영어 ·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로 되어 있다.

C Major 740408 [2DVDs]
C Major 740504 [Blu-ray]

라 스칼라 극장 아카데미의 모차르트 '마술피리'

아담 피셔(지휘), 라스칼라 아카데미아 오케스트라 · 합창단, 파트마 자이드(타미노), 마르틴 피슈코르스키(파미나), 야즈민 옥칸, 마르틴 섬머(자라스트로), 틸 본 오를로프스키(파파게노)

아담 피셔의 지휘와 젊은 음악가들이 뭉치다

유명 연출가 페터 슈테인, 무대 디자이너 페르디난트 뵈저바우어, 지휘자 아담 피셔로 구성된 스타군단이 만든 라 스칼라 극장의 모차르트 '마술피리'로, 2016년 9월 실황이다. 피셔는 1986년에 라 스칼라에서 '마술피리'로 데뷔했으니, 데뷔 30주년이라는 뜻깊은 의미가 있는 프로덕션이다. 오케스트라, 코러스, 솔리스트 및 아티스트 모두 라 스칼라 극장이 2001년에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아카데미아 라 스칼라의 학생들이다. 파미나 역의 파트마 자이드, 밤의 여왕 역의 야즈민 옥칸은 독일의 유력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1991년생의 파트마 자이드는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무대의 영상은 여러 대의 카메라 워킹을 통해 클로즈업부터 입체적인 전체 숏까지, 보는 맛을 더해준다. 총 길이 173분. 해설지에는 작품에 대한 해설(영어 · 독일어 · 프랑스)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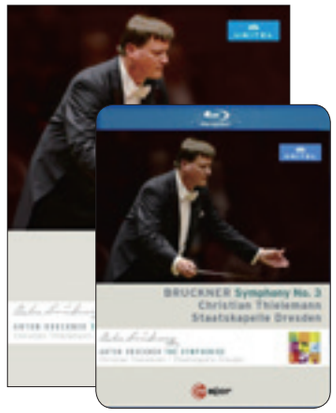
[보조자료]

– 유명 연출가 페터 슈테인, 무대 디자이너 페르디난트 뵈저바우어, 그리고 지휘자 아담 피셔로 구성된 스타군단이 만든 라 스칼라 극장의 모차르트 '마술피리'다. 영상은 2016년 9월 실황을 담고 있다. 아담 피셔는 1982년에 '장미의 기사'를 지휘하면서 파리오페라에 데뷔했고, 1986년엔 라 스칼라에서 '마술피리'를 지휘하면서 데뷔했으니, 그에게 라 스칼라 '마술피리' 데뷔 30주년이라는 뜻깊은 의미가 있는 프로덕션이다.

– 프로덕션에서 오케스트라, 코러스, 솔리스트 및 아티스트 모두 2001년 젊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라스칼라 극장이 설립한 아카데미아 라 스칼라의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는 놀랍다. 오스트리아 '디르세'지는 "피셔는 섬세한 지휘와 인간적인 표현으로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로부터 최고의 지휘자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전했고, 독일의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으로부터 "타미노 역의 파트마 자이드, 밤의 여왕 역의 야즈민 옥칸은 최고였다"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파트마 자이드는 1991년생의 소프라노로 그 젊은 기운을 무대에서 재치 있게 뿜어낸다.

– 이 영상물은 영상감독 로베르토 마리아 그라시의 역할이 크다. 도입부는 마치 영화의 첫 장면을 보는 듯하다. 카메라는 무대 뒤와 분장실을 돌아다니며 막이 오르기 몇 분 전의 긴장감을 재현한다. 무대의 영상 역시 여러 대의 카메라 워킹을 통해 클로즈업부터 전체 숏까지, 보는 맛을 제공한다.

– 총 길이 173분이며, 해설지에는 작품에 대한 해설(영어 · 독일어 · 프랑스)이 담겨 있으며, 영상은 영어 · 프랑스어 · 스페인어 · 한국어 · 일본어 자막을 갖추었다.



C Major 740808 [DVD]
C Major 740904 [Blu-ray]

2016년 뮌헨 필하모니 브루크너 교향곡 3번 '바그너' 실황

크리스티안 틸레만(지휘),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틸레만의 지휘봉! 브루크너를 통해 바그너의 잠을 깨우다

2012년 취임한 틸레만과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브루크너 교향곡 3번 실황물이다. 이 곡은 바그너가 브루크너의 헌정을 받아들여 일명 '바그너 교향곡'이라고도 불리지만, 훗날 바그너에 대한 실망감과 주변 지인들의 참견으로 바그너 음악의 인용부분이 1877년과 1889년 개정작업과 함께 점차적으로 사라진 곡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많은 지휘자들이 수정을 거쳐 브루크너 색채의 응축도가 높아진 1889년판을 채택하는 것과 달리 틸레만은 1877년 판본을 택했다. 철저한 개정의 칼을 들이대었지만 바그너의 온기가 남아 있는 것이며, 이러한 판본 역시 바그너 전문가인 틸레만이 지나쳤을 리 없었으리라. 틸레만의 연주는 온건하고 기품 있으며 너그럽다. 1080i 해상도의 놀라운 화질과 PCM스테레오/DTS-HD MA5.0/서라운드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오디오 옵션은 묻히기 쉬운 악기들의 음색을 또렷이 끄집어내는 틸레만의 지휘와 연주환경을 고스란히 재연한다.

[보조자료]

–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고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가 연주한 브루크너 교향곡 3번을 담긴 영상물로, 2016년 9월 2 · 3일 독일 뮌헨 필하모니에서 실황 영상물이다.

– 1548년 창단된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는 베버 · 바그너에 이어 20세기에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67년간 음악감독을 맡은, 이른바 '살아있는 서양음악사'로 불리는 악단이다. 2012년부터 독일 정신의 계승자로 불리는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수석지휘자로 취임해 468년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역사의 순도 높은 악단과 함께 틸레만은 브람스 교향곡 전곡을 비롯하여 브루크너 교향곡 5 · 8 · 9번 실황 영상물을 차례대로 내놓고 있다.

– 1873년에 완성되어 바그너에게 헌정했기에 '바그너 교향곡'이라는 부제를 안고 있는 교향곡 3번은 그의 교향곡들 가운데서 가장 복잡한 판본을 지니고 있다. 훗날 바그너에 대한 실망감과 주변 지인들의 참견으로 바그너 음악의 인용부분은 1877년과 1889년 개정작업과 함께 점차적으로 사라진다. 브루크너만의 특색이 짙게 드러나는 것도 이때부터다. 교향곡 3번은 크게 1873년 판, 1877년 판, 1889년 판으로 나눠지는데, 오늘날의 많은 지휘자들이 여러 수정을 거쳐 응축도가 높아진 1889년 노바크판을 채택하는 것과 달리 틸레만은 1877년 판본을 택했다. 1877년 판은 철저한 개정의 칼을 들이대었던 것이고, 3악장 스케르초에 코다를 포함하고 있다.

– 그의 연주는 온건하고 너그러우며 기품이 배어 있다. 한스 리히터부터 푸르트벵글러, 오토 클렘페러 등 독일계 지휘자가 연주하는 독일 악단의 특정 사운드가 틸레만에게서도 들린다. 시종 흐트러짐이 없고, 화려한 외형의 효과를 노리기보다 정성스럽게 브루크너의 음악 세계를 하나하나 짚어가는 틸레만의 자세는 훌륭하다.

– 관악 독주의 시작을 잡아내는 카메라의 움직임은 재빠르며 영상에 더욱더 집중하게 한다. 1080i 해상도의 놀라운 화질과 PCM스테레오/DTS-HD MA5.0/서라운드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오디오 옵션은 묻히기 쉬운 악기들의 음색을 또렷이 끄집어내는 틸레만의 지휘와 연주환경을 고스란히 재연한다. 묵직한 총주에서도 악기 사이에 통풍이 잘 되는, 실제 홀에서 느껴지는 음질과 임장감은 잊지 못할 감동을 안겨준다.

[함께 추천하는 영상]

– 틸레만과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2015년 브루크너 교향곡 4번 '로맨틱' 실황 (C MAJOR 732604),
교향곡 6번 실황 (C MAJOR 738304)

C Major 741408 [2DVDs]
C Major 741504 [Blu-ray]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의 새로운 메카 '함부르크 엘프 필하모니 홀' 그랜드 오프닝 콘서트 및 건물형성 과정을 상세히 담은 귀중한 다큐

토마스 헹엘브로크(지휘), 북독일방송교향악단, 칼리브 쿨쥬(오보에), 필리프 자루스키(카운터테너), 하르그레트 쾰(하프), 야오 지아(피아노), 한나 엘리자베 뮐러(소프라노), 뷔크 렘쿨(메조소프라노), 파볼 브리슬릭(테너), 브라이언 터펠(베이스)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엘프 필하모니를 느낄 수 있다!

2017년 1월 11일, 함부르크 엘프 필하모니 개관 기념 공연 실황을 담고 있는 영상물이다. 엘프 필하모니의 야경과 외관, 내부 곳곳을 비추는 카메라 워킹이 음악과 함께 한다. '뉴욕 타임즈'로부터 '눈에 띄는 건물, 반짝이는 콘서트!'라는 평을 받았던 개관 공연의 영상물은 역사적 현장에 있지 못했던 이들의 갈증을 한방에 해소해준다. 엘프 필하모니에 상주하는 북독일 방송교향악단(NDR)과 상임지휘자 토마스 헹엘브로크는 고음악(카발리에리 · 프레토리우스 등)과 현대음악(브리튼 · 뒤티외 · 치머만 · 리버만 등)을 교차적으로 연주하다가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으로 대미를 장식한다(112분 분량). 고화질과 고음질, 그리고 다양한 각도의 카메라 워킹이 현장의 생생함을 배가시킨다. 다큐멘터리(53분 분량)는 이 홀의 스케치 계획부터 개관 이전의 리허설에 이르기까지 형성과정을 담은 귀중한 자료이다.

[한글자막과 함께하는 특별한 다큐멘터리]

보너스 트랙의 다큐멘터리 '함부르크의 새로운 랜드마크'(53분 분량)는 첫단계인 스케치 계획에서부터 개관 이전의 리허설에 이르기까지 건물의 형성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건축가 피에르 드 뫼롱, 수석 음향기술자 야스히사 도요타, 헹엘브로크 등의 인터뷰를 담고 있다. 공연(112분 분량)과 다큐멘터리 모두 한국어 자막을 갖추었다.

[보조자료]

– '가디언'지로부터 "경이로운 홀"이라는 찬사를 받은 엘프 필하모니는 숨 막힐 정도로 정교한 건축술과 항구에 입지한 독특한 위치, 그리고 세계적인 음향과 울림을 자랑하는 콘서트홀의 기술력이 빚은 독일 함부르크의 기념비이자,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인 유럽의 자존심이다. 2,011석을 수용하는 대극장은 2016년에 개관한 서울 롯데콘서트홀의 음향을 담당해 한국에도 그 이름이 익숙해진 토요타 야스히사의 빈야드(포도밭) 스타일로 최상의 음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일이 형태를 만들어둔 1,000개의 음향접시로 반사음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 2017년 1월 11일 개관 기념 콘서트 실황을 담고 있는 이 영상물은 실황 공연과 함께 엘프 필하모니의 야경과 외관, 내부 곳곳을 비추는 카메라 워킹이 함께 하는 데에 큰 매력이 있다. 개관 공연은 함부르크 라이스 할레(Laeiszhalle)에 상주하다가 엘프 필하모니의 개관과 함께 거처를 옮긴 토마스 헹엘브로크와 북독일 방송교향악단(NDR)이 연주를 맡았다. 2011년부터 상임으로 재직하며 브람스와 브루크너 등 낭만주의에 방점을 찍어온 헹엘브로크는 개관 기념 공연에서 고음악과 현대음악을 오가는 실험을 펼친다.

– 공중과 야외에서 촬영한 외관을 담은 영상이 도입부를 열고, 토마스 헹겔브로크가 입장하면서 비추는 내부의 전경은 이 공연에 자리한 듯 생생한 느낌을 제공한다. 영상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11개의 영상 트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트랙별 내용]

(1) 형이상학적인 무늬처럼 설치된 콘서트홀 내부의 비상등만 켜진 상태에서 암전 속에서 울려 퍼지는 브리튼의 '판' (오보에 칼리브 쿨쥬)

(2) 함부르크 항구에서 빛을 내고 있는 외관과 함께 하는 앙리 뒤티외 '결정적인 미스테리'

(3) 암전 상태에서 관객석 끝에서 노래하는 카운터테너 필리프 자루스키의 카발리에리 '라 펠레그리나' (하프 마르그레트 쾰)

(4) 함부르크 항구의 야경과 콘서트홀 내부의 독특한 인테리어 영상이 교차 편집되는 가운데 흐르는 베른트 치머만의 '포토토시스(Photoptosis)'

(5) 관객석 끝에 위치하여 다섯 명의 성악가들이 선사하는 프레토리우스의 고음악

(6) 롤프 리버만의 '퓨리오소'(피아노 야오 지아)

(7) 암전 상태에서 관객석 맨 끝에서 신비롭게 들려오는 카치니 '나의 아름다운 아마릴리'(카운터테너 필리르 자루스키, 하프 마르그레트 쾰)

(8) 무대의 천정에서 무대를 수직으로 내려다보며 콘서트홀의 전경을 카메라에 담은 메시앙의 '투랑갈리라 교향곡'

(9) 바그너의 '파르지팔' 서곡

(10) 볼프강 림의 '회상'(테너 파볼 브리슬릭 · 오르간 이베타 아칼라나)

(11) 함부르크 하펜시티 지역, 엘베 강변의 야경을 물들이는 화려한 건물의 불빛과 함께 울려퍼지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한나 엘리자베 뮐러(소프라노), 뷔크 렘쿨(메조 소프라노), 파볼 브리슬릭(테너), 브라이언 터펠(베이스))

'뉴욕 타임즈'로부터 '눈에 띄는 건물, 반짝이는 콘서트!'라는 평을 받았던 개관 공연의 영상물은 역사적 현장에 있지 못했던 이들의 갈증을 한방에 해소해준다. 고화질의 영상(1080i), 실황의 묘미를 제공하는 고음질의 녹음(PCM스테레오/DTS-HD MA5.0)이 현장의 생생함을 배가시킨다.

[함께 추천하는 영상]

– 헹엘브로크와 북독일 방송교향악단의 2016 브람스 교향곡 전곡
함부르크 라이스 할레(Laeiszhalle) 실황(Cmajor741104)

Dynamic

www.dynamic.com

Dynamic 37757 [2DVDs]
Dynamic 57757 [Blu-ray]

영상물로는 '세계 최초로 발매'

도니제티 극장의 도니제티 '영국의 로사문드'

세바스티아노 롤리(지휘), 도니제티 오페라 오케스트라 · 합창단,
제시카 프랫(로사문드), 레오노라(에바 메이), 헨리 2세(다리오 쉬츠문크) 등

숨어 있던 도니제티의 명작과 마주하는 순간!

도니제티의 고향 베르가모의 도니제티 극장 2016년 실황으로, 영상물로는 '세계 최초로 발매'라는 타이틀이 달려 있다. 도니제티의 '영국의 로사문드'는 1834년에 초연 이후, 1975년 악보의 발견과 함께 긴 잠에서 깨어난 작품이다. 로사문드는 자신이 사랑한 남자가 영국 왕 헨리 2세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이들의 관계를 안 레오노라 여왕과 라이벌이 된다. 두 여인의 오해가 풀리려고 할 때, 헨리 왕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레오노라는 로사문드를 죽이고 비극의 막을 내린다. 연출가 파올라 로타는 화려한 의상과 무대의 검정색 배경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가운데, 로사문드 역의 제시카 프랫과 레오노라 역의 에바 메이는 도니제티의 숨겨진 끼와 명성을 제대로 드러낸다. 귀로 맛보는 즐거움 역시 일품이다. 이탈리아어 · 영문으로 된 해설지가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도니제티(1797~1848)의 대표작은 몇 개로 함축된다. '사랑의 묘약' '연대의 아가씨' '라메르무어의 루치아'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영상물과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던 도니제티의 음악적 폭과 세계를 맛볼 수 있기에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 본 영상물에 담긴 것은 '영국의 로사문드'로, 도니제티가 작곡한 2막의 작품이다. 도니제티가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한 베르가모에 위치한 도니제티 극장에 오른 2016년 실황으로, 영상물로는 '세계 최초로 발매'라는 타이틀이 달려 있다.

– '영국의 로사몬드'는 1834년에 플로렌스 테아트로 델라 페르골라에서 초연 이후, 몇 차례 오르긴 했으나 관심을 못 받았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다. 그러던 중 1975년 나폴리 음악원의 도서관에서 도니제티의 서명이 들어 있는 스코어가 발견되어 거의 한 세기 만에 빛을 보게 되었다. 그 후로 이 오페라는 관심을 받으며 자주 공연하는 작품이 되었다.

– 영국 왕 헨리 2세의 부인으로 유명한 레오노라 여왕과 로사문드를 둘러싼 내용이다. 로사문드는 자신이 사랑한 남자가 헨리 2세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이들의 관계를 안 레오노라 여왕과 라이벌이 된다. 레오노라 여왕의 분노와 상황을 아는 이는 로자몬다와 비밀리에 사랑을 하는 기사 아르투로 뿐이다. 하지만 두 여인의 오해가 풀리려고 할 때, 헨리 왕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레오노라는 단검으로 로사문드를 죽이고 비극의 막을 내린다.

– 이 프로덕션은 이 작품이 얼마나 매혹적인 아리아와 감동적인 악절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며 로사문드 역의 제시카 프랫과 레오노라 역의 에바 메이는 도니제티의 숨겨진 끼와 명성을 제대로 드러내는 가수로 비극의 정수를 드러낸다.

Dynamic 37776 [2DVDs]
Dynamic 57776 [Blu-ray]

2016 베르디 페스티벌 실황

베르디: '돈 카를로'

미셸 페르투시(필리프 2세), 호세 브로스(돈 카를로), 로드리고(블라디미르 스토야노프),
다니엘 오렌(지휘),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체사레 레비(연출)

찬란한 테너, 고풍스런 베이스의 대향연

파르마 극장은 2003년부터 매해 10월마다 베르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 영상물은 2016년 베르디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베르디 '돈 카를로' 실황이다. 이 작품의 대표적인 아리아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를 부르는 카를로(호세 브로스)와 로드리고(블라디미르 스토야노프)의 목소리는 옷깃을 잡아당기는 듯 멋진 표정의 루바토가 인상적이다. 필리프 왕의 아리아 '그녀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를 소화해내는 이탈리아의 미셸 페르투시는 묵직하면서도 맛깔나고 리드미컬한 저음이다. 빛을 내는 단연 지휘자이다. 다니엘 오렌은 비극적인 분위기를 완화하고, 체사레 레비가 연출한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에 음악이 고급스러우면서도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한다.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제공하는 영상물이다.

[보조자료]

– '파르마'라면 다소 생소한 지명으로 들릴지 모르나, 미식가들에겐 이곳이 파르마산 치즈의 본고장이란 것쯤은 기본 상식이다. 하나 더, 음악을 애호하는 이들에겐 토스카니니의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다.

– 파르마 극장은 1829년에 세워진 극장으로, 2003년부터 매해 10월마다 베르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 영상물은 2016년 베르디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베르디 '돈 카를로' 실황이다.

– 1867년 파리오페라에서 초연된 '돈 카를로'는 놀랍도록 혁신적인 작품이다. 베르디는 이 작품에 명예와 부담을 동시에 진 '권력'의 이중성, 불가능한 사랑,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자유를 갈망하는 억압된 군중의 모습을 담았다. 1883년에는 5막을 4막으로 수정 · 축소했고, 이탈리아에서 초연으로 선보였다. 오늘날 연주되는 대부분은 이 수정된 버전이다.

– 서막이 오르고 몇 분 뒤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아리아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를 부르는 카를로(호세 브로스)와 로드리고(블라디미르 스토야노프)의 목소리는 옷깃을 잡아당기는 듯 멋진 표정의 루바토가 인상적이다. 이내 곧 스피커를 팽팽하게 울려버린다. 필리프 왕의 아리아 '그녀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를 소화해내는 이탈리아 베이스 미셸 페르투시는 묵직하면서도 맛깔나고 리드미컬한 저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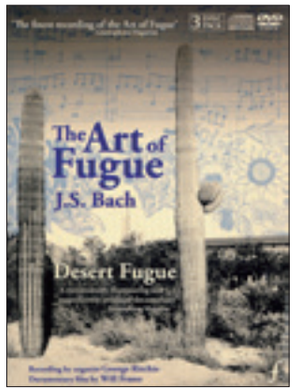
– 남성 성악가들의 비중이 높은 이 작품에 빛을 내는 이는 지휘자 다니엘 오렌이다. 작품에 내재된 비극적인 분위기를 완화하고, 체사레 레비가 연출한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에 음악이 고급스러우면서도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현장감을 생생히 전해주는 소리가 스피커를 쩌렁쩌렁하게 울린다. 자막은

[함께 추천하는 영상]

– 2012년 모데나 루치아노 파바로티 시립 극장 실황. 지아코모 프레스티아(필리프 2세), 마리오 말라그니니(돈 카를로), 시모네 피아촐라(로드리고), 파르리치오 벤추라(지휘), 델에밀라 오케스트라

Fugue State Films

www.fuguestatefilms.co.uk



Fugue State Films FSFDVD 001 [DVD]

바흐: '푸가의 기법' 외

조지 리치(오르간), 월 프레이저(영상)

'푸가의 기법'을 위한 최고의 교과서!

푸가의 유산을 오르간을 통해 널리 알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푸가 스테이트 필름(Fugue State Films)이 내놓은 최고의 역작이다. CD1에는 17개의 트랙에 '푸가의 기법'이 담겨 있고, 곡들은 CD2의 세 트랙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CD2에는 바흐의 캐논 변주곡 BWV769를 포함하여 여러 합창곡이 들어 있다. 조지 리치는 고도의 집중력과 직접적인 전달력이 있는 연주를 선보인다. 녹음에 사용된 미국 애리조나, 매사추세츠 등에 설치된 여러 오르간의 소리도 명품이다. 해설지에는 각 오르간들의 구성과 사항이 꼼꼼히 담겨 있다. 영상물 '데저트 바흐'(90분)에서 '푸가의 기법'이 서양음악에 어떻게 광범위한 전통으로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논하고, 조지 리치는 '푸가의 기법'의 각 대목을 꼼꼼히 설명하고 연주한다(111분). CD에서 받은 감동이 DVD의 해설에 의해 배가되는 패키지이다.

[보조자료]

– 바흐의 대위법 작품들에 뛰어난 해석자이자 미국의 오르가니스트인 조지 리치가 권위있는 연주로 내놓은 바흐 '푸가의 기법'이다. 조지 리치의 명저 '오르간 테크닉: 현대와 초창기'는 국내에 번역 · 출간되어 있기도 하다.

– 푸가는 중세 이후로 한 주제를 기본으로 하여 다성음악을 작곡하는데 사용된 기법이다. 라틴어로 '도망가다'와 '쫓아가다'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 '도망가다'와 '쫓아가다'란 의미는 소위 모방기술의 대위법적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법들이 골격을 이루는 바흐의 후기 작품 '푸가의 기법'은 특정 악기를 위해 써지지도 않았기에 오늘날에도 다양한 악기편성으로 여러 가지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앨범을 발매한 푸가 스테이트 필름(Fugue State Films)은 이러한 푸가의 유산을 오르간을 통해 널리 알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그라모폰으로부터 "푸가의 기술의 최고의 녹음"이라 평을 받은 이 음반은 두 장의 CD와 한 장의 DVD로 구성되어 있다. CD1에는 17개의 트랙에 '푸가의 기법'의 대다수가 담겨 있고, CD2의 세 트랙으로 이어진다. CD2에는 바흐의 캐논 변주곡 BWV769를 포함하여 합창곡 '눈 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BWV 645 등의 합창곡이 들어 있다. 리치는 고도의 집중력과 직접적인 전달력이 있는 연주를 선보인다. 이 앨범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유럽의 고성당의 오르간이 아니라 미국 애리조나, 매사추세츠 등에 설치된 여러 오르간의 소리로 바흐의 명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설지에는 각 오르간들의 구성과 사항이 꼼꼼히 담겨 있다.

– 이 구성물의 백미는 DVD이다. 90분 분량의 '데저트 바흐'에서 바흐 학자이자 음악사학자인 크리스토프 울프와 조지 리치는 바흐의 푸가 기술과 그것이 어떻게 서양음악에서 광범위한 전통으로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논한다. 오르간 제작자 랄프 리차드와 부르스 폭크는 바흐의 오르간 작품과 악기와의 적합성에 관해 토론하기도 한다. 111분 분량의 '조지 리치의 '푸가의 기법' 해설'은 곡과 바흐의 유산에 관한 것이다. 조지 리치는 '푸가의 기법'을 이루는 14개의 곡을 꼼꼼히 설명하고 연주한다. CD에서 받은 감동은 DVD의 해설에 의해 더욱더 배가되는 패키지이다.

Naxos

www.naxos.com

Naxos 2.110385 [DVD]
Naxos NBD0059 [Blu-ray]

푸치니: '라 보엠'

요하힘 뵉스톤(로돌프 역), 올레샤 골로프네바(미미 역), 마리아 폰토쉬(무제타 역), 크리스티안 바데아(지휘), 말뫼 오페라 오케스트라&합창단 · 어린이합창단

사실주의적 연출과 대비되는 아름다운 노래들

2014년 5월, 스웨덴 말뫼 극장의 푸치니의 '라 보엠'. 연출가 오르파 펠란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했다. 로돌포(요하힘 뵉스톤)의 '그대의 찬 손', 미미(올레샤 골로프네바)의 '내 이름은 미미', 로돌포와 미미의 이중창 '오, 사랑스런 그대', 무제타(마리아 폰토쉬)의 왈츠 '내가 혼자 거리를 걸어가면' 등 주요 아리아를 미끈한 음빛으로 구현하는 최고의 성악진은 자연스러우며 능숙한 표현력으로 귓가를 잡아끈다. 연출가는 주인공들이 품고 있는 빈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오히려 대비되는 음악이 더욱더 아름답게 들린다. 1080i의 초고화질의 영상은 블루레이 마니아들이 탐낼만하고, PCM스테레오/ DTS-HD 5.1 오디오 옵션으로 현장의 음향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보조자료]

– 2014년 5월, 스웨덴 말뫼 극장에서 있었던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을 담은 영상물이다. 푸치니의 '라 보엠'은 청춘들의 로맨틱한 인생관과 그들의 순수함이 종말을 고하는 비극적 작품이다. 1930년대를 배경으로 설정한 이 프로덕션에서 연출가 오르파 펠란은 푸치니가 만든 캐릭터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 로돌포(요하힘 뵉스톤)의 '그대의 찬 손', 미미(올레샤 골로프네바)의 '내 이름은 미미', 로돌포와 미미의 이중창 '오, 사랑스런 그대', 무제타(마리아 폰토쉬)의 왈츠 '내가 혼자 거리를 걸어가면' 등의 주요 아리아들을 성악진이 미끈한 음빛으로 구현한다. 자연스러운 흐름과 능숙한 표현이 눈에 띈다.

– 스웨덴의 유력지 '스벤스카 다그블라더트'지가 "지금까지 본 푸치니의 오페라 중 가장 감동적인 작품 중 하나!"라고 극찬한 이 작품의 매력은 연출가가 구사하는 극과 음악의 대비 방식이다. 연출가는 가난한 청춘에 낭만을 보여주지 않는다. 놀랍도록 로맨틱한 도시 파리는 누구든 사랑에 빠지게 만들지만 그는 '누구든 눈 녹은 진흙탕의 파리에 있어본 사람이라면 특별한 사랑 따위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화려한 오페라이지만 주인공들이 품고 있는 빈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오히려 그로 인해 음악이 더욱더 아름답게 들린다. 이것이 이 프로덕션을 더욱 근사하게 만드는 대비다.

– 2014년 말부터 블루레이 영상물 제작과 시장에 뛰어든 낙소스 레이블의 디테일한 영상 연출법을 만끽할 수 있다. 자막은 이탈리아어. 1080i의 초고화질의 영상은 블루레이 마니아들이 탐낼만하고, PCM스테레오/ DTS-HD 5.1 오디오 옵션으로 현장의 음향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OpusArte

www.opusarte.co.uk

OpusArte OA1238D [DVD]
OpusArte OABD7218 [Blu-ray]

OPUS ARTE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다니엘레 드 니세(로지나 역), 알레산드로 코르벨리(바르톨로 박사 역), 외른 부르거(피가로 역), 테일러 스태이턴 (알마비바 역), 크리스토포로스 스탬보글리스(바실리오), 제니스 켈리(베르타), 애나벨 아덴(연출), 엔리크 마촐라 (지휘),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세비야의 이발사'. 최고의 화질과 음질로 만나다

글라인드본 오페라페스티벌 2015년 6월 실황. 바로크부터 이탈리아 오페라를 두루 섭렵한 로지나 역의 다니엘레 드 니세가 눈길을 끈다. 투명하고 낭랑한 목소리에 유머 감각까지 더해진 니세의 노래는 너무나도 매혹적이다. 애나벨 아덴의 연출은 시각적 세련미와 웃음의 분위기를 선사하며, '가디언'지로부터 "빈틈없는 앙상블"이라는 찬사를 받은 엔리크 마촐라가 런던 필과 빚어내는 음악에는 윤기가 흐른다. Full HD 1080p의 화질과 카메라 워킹은 영화적 재미를 더하고, 24비트 스테레오와 DTS HD 마스터 오디오 기능은 지휘자 · 성악가 · 오케스트라의 경쾌한 호흡을 여실히 드러내어 로시니의 작품이 지닌 웃음의 정수를 보여준다. 다니엘레 드 니세와 엔리크 마촐라가 공연영상을 보며 설명하는 코멘터리 필름(약 165분)과 메이킹 필름(약 7분)이 포함되었다.

[보조자료]

– 1934년부터 개최된 글라인드본 오페라 페스티벌은 새로운 프로덕션을 부지런히 선보이는 영국의 중요 페스티벌이다. 이 영상물은 이 페스티벌에서 2015년 6월에 선보인 로시니 '세빌리아의 이발사' 실황이다.

– '세비야의 이발사'는 1816년 로마에서 초연된 작품. 로지나는 바르톨로 박사의 아름다운 피후견인으로, 박사는 그녀와 결혼할 계획을 세워둔다. 그런데 로지나와 사랑에 빠진 알마비바 백작이 솜씨 좋은 이발사 피가로의 도움을 받아 박사의 집에 잠입한다. 처음에는 그 집에 숙소를 배정 받은 군인으로, 그 다음은 노래 선생으로 변장한다. 알마비바 일당이 바르톨로 집안사람들을 속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박사의 집안사람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로지나의 사랑을 얻으려 하면서 이야기의 재미가 더해간다. 로지나 역의 다니엘레 드 니세는 매혹적이다. 몬테베르디 '포페아의 대관식'에서 포페아를, 헨델 '줄리오 체사레'에서 클레오파트라 등을 노래한 그녀는 바로크 음악계의 흑진주로 떠올랐으며, 본 작품의 로지나 역을 통해 영국 유력지 '인디펜던트'로부터 "강력하게 노래를 구사한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투명하고 낭랑한 목소리에 유머 감각까지 더해진 니세의 노래는 너무나도 매혹적이다. 알레산드로 코르벨리는 분노에 치를 떨고, 자존심에 상처 입고, 절망하는 바르톨로 박사를 완벽하게 표현한다.

– 모차르트 '마술피리', 몬테베르디 '율리시즈의 귀환', 푸치니 '잔니 스키키' 등을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단골연출가 애나벨 아덴의 연출은 시각적 세련미와 웃음을 동시에 선사한다. 그의 연출에 의해 지휘자 엔리크 마촐라도 무대를 향해 "고맙네, 친구들. 기타는 한 대면 충분하네"라며 연기를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엔리크 마촐라와 런던 필과 빚어내는 음악에는 윤기가 흐른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으로부터 "빈틈없는 앙상블"라는 찬사를 받을만하다.

– Full HD 1080p의 화질과 카메라 워킹은 영화적 재미를 더하고, 24비트 스테레오와 DTS HD 마스터 오디오 기능은 지휘자 · 성악가 · 오케스트라의 경쾌한 호흡을 여실히 드러낸다. 공연의 자막은 한국어,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되어 있다. 그 외에 다니엘레 드 니세와 엔리크 마촐라가 함께 공연영상을 보며 해설하는 코멘터리 필름(약 165분, 자막 없음)과 메이킹 필름(약 7분, 자막 없음)이 포함되어 있다.

[함께 추천하는 영상]

– 글라인드본 오페라페스티벌의 헨델 박스물(OPUS ARTE OA BD7211 BD) 중 다니엘레 드 니세(클레오파트라)가 출연하는 '줄리오 체사레'
– 글라인드본 오페라페스티벌의 도니제티 '폴리우토'(OPUS ARTE OA1211), 지휘 엔리케 마촐라

Aurora LP

www.aurora.ws

KING 1003LP [2LPs]
[180g 독일제작]

순환하는 도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정중동의 이미지
Audiophile 애호가와 현악애호가들에게 적극추천

오디오파일 음반 마스터링의 명스튜디오
독일 Pauler Acoustics studio에서 re-mastering, Germany – LP, SACD 제작

게리카가 연주하는 180g 오디오파일 LP 독일제작

게리카가 연주하는 포스터 가곡과 흑인 영가

게리 카(더블베이스), 하몬 루이스(피아노 · 오르간)

더블베이스가 노래하는 노스탤지어. 포스터의 가곡과 흑인영가

더블베이시스트 게리 카(b.1942)의 신들린 듯한 연주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부신 선율을 뿜어내는 것 같은 감동이 자리한다. 이 앨범에서 게리 카는 느슨하고 즉흥적이며 짙은 서정이 배어있는 포스터(1826~1864) 작곡 '켄터키 옛집' '오, 수잔나' 등의 9곡과 '제리코의 싸움'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 추억 어린 멜로디들이 흐르는 흑인영가 10곡, 이렇게 총 19곡의 노래를 들려준다. 180g 슈퍼LP에 담긴 저음역의 소리는 마음을 평안하고 부드럽게 앉혀준다. 게리 카의 1611년산 아마티 사이로 고개를 드는 루이스의 오르간 연주도 성스럽다.

Side A
01. My Old Kentucky Home, Good Night
02. Oh! Susanna
03. Camptown Races
04. Beautiful Dreamer

Side B
05. Joshua Fit the Battle O'Jerico
06. Steal Away to Jesus
07. Deep River
08. Were You There?
09. De Ol'Ark's A-moverin'
10. Jeanie With The Light Brown Hair

Side C
11. Old Black Joe
12. Gentle Annie
13. Old Dog Tray
14. Old Folks at Home

Side D
15.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16. Swing Low, Sweet Chariot
17.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18. Standin' in the Need of Prayer
19. Amazing Grace

**
YouTube : *https://youtu.be/10WvjvN3WFE*

KING 1004LP [2LPs]
[180g 독일제작]

180g Audiophile Vinyl Pressing

피터 뢰젤이 연주하는 사랑스런 피아노 소품들
바흐 외 12명 작곡가: 19곡의 소품들

피터 뢰젤 (피아노)

초심자부터 전문가까지를 아우르는 피아노 선율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멘델스존, 그리그, 슈만, 차이콥스키, 슈베르트, 베버, 라흐마니노프, 슈베르트, 쿠바 작곡가 에르네스토 레오쿠나(1896–1963), 13명의 작곡가가의 19곡이 수록된 앨범이다. 20대에 브람스에 깊이 빠져들었던 피터 뢰젤(b.1945)이 내면적인 로맨티시즘을 추구하는 접근방식이 빛을 발하는 음반이며, 한편으론 피아노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고 싶은 초심자에게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음반이다. 음악은 한없이 친숙하여 거리낌이 없으며, 뢰젤의 터치는 수면에 잔잔한 물결을 내듯 한없이 부드럽다.

Side A
01. J. S. Bach: Franzosische Suite Nr. 5, Gavotte G-Dur
02. Mozart: Piano Sonata KV331, 'Alla Turca'
03. Beethoven: Bagatelle A-Moll Wo059 'FUR ELISE'
04. Beethoven: Rondo C-Dur op. 51.1
05. Chopin: Walzer A-Moll op. 34.2

Side B
06. Mendelssohn: Lieder ohne Worte op. 62.6 'Fruhlingslied
07. Grieg: Lyrische Stuke Heft 5, Troldtog
08. Grieg: Lyrische Stuke Heft 5, Notturno
09. Schumann: Kinderszenen op. 15, Traumerei
10. Schumann: Kinderszenen op. 15, Von fremden Landern und Menschen
11. Tschaikowsky: Die Jahreseiten op. 37bis. Barkarole

Side C
12. Tschaikowsky: Humoreske op.10,2
13. Schubert: Impromptu As-Dur D935,2
14. Schubert: Moment Musical Nr. 3 f-Moll D780,3
15. Weber: Aufforderumg zum Tanze op. 65

Side D
16. Rachmaninov: Moment Musical Nr. 5 Des-Dur op. 16,5
17. Lecuona: Suite Espanola 'Andalucia', Cordoba
18. Lecuona: Suite Espanola 'Andalucia', Malaguena
19. Shchedrin:

**

YouTube : *https://youtu.be/fMAUuGlRulQ*

Berliner Philharmoniker

www.berliner-philharmoniker.de

BPHR160092 [10LP Set]
[180g 독일제작]

BERLINER PHILHARMONIKER

사이먼 래틀과 베를린 필하모니커의
베토벤 교향곡 전곡 레코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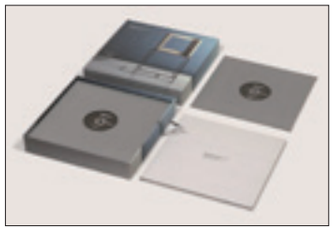
* 10 LP Set (180g Vinyl)
* Hardcover booklet, 52 pages
* 24–bit download code
* **레코딩:** One Point microphone set–up
  (원 포인트 마이크로폰 셋업을 통해 하나의 싱글 페어 마이크만을 사용한 것이 특징)
* Recorded in October 2015, Philharmonie Berlin

베를린 필하모니가 그들의 상임 지휘자와 녹음한 베토벤 교향곡 전집 앨범들은 항상 일종의 예술적인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 2015년 말 사이먼 래틀과 연주한 베토벤 교향곡 사이클은 청중과 평단으로부터 비르투오시티 넘치는 인상적인 연주와 더불어 작품에 혁명적일 정도로 강한 에너지를 불어넣은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5장의 CD와 블루레이 포맷으로 발매된 바 있는 이 사이클이 이번에는 LP 포맷으로 처음 발매되었다.

순수한 레코딩 퀄리티를 지향하는 이 레코딩은 원 포인트 마이크로폰 셋업을 통해 단 하나의 싱글 페어 마이크만을 사용한 것이 특징으로서 필하모니의 고유한 어쿠스틱을 이례적일 정도로 적확하게 포착해 냈다.

Ludwig van Beethoven: Symphonies Nr.1–9
Berliner Philharmoniker
Sir Simon Rattle Conductor

(Solist)
Annette Dasch (Soprano) · Eva Vogel (Mezzo-soprano)
Christian Elsner (Tenor) · Dimitry Ivashchenko (Bass)
Rundfunkchor Berlin



Divox LP

www.divox.com

Divox Antiqua LP LPX71601

DIVOX

[오디오파일 레코딩]

Telefunken M15 Taperecorder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아날로그 마스터로 제작된
대표적인 불후의 명반을 180g LP로 만나다

비발디 '사계'

소나토리 데 라 지오이오사 마르카, 쥴리아노 카르미뇰라(바로크 바이얼린)

"세기적인 레코딩" – 지금까지의 감동은 모두 잊어라!
고전음악 레퍼토리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비발디의 협주곡 4계는 그 유명세만큼이나 명연주 명반들이 즐비하다. 그중에서 누가 선정하더라도 1위 아니면 다섯 손가락 안에는 반드시 꼽힐 명연 중의 명연이 바로 카르미뇰라의 음반이다. 비발디 시대의 오리지널 악기로 연주하고 있고, 옛 악기임에도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인토네이션이나 앙상블에는 아주 작은 결점도 없이 완벽하고, 비발디 음악의 외관적 특징인 생생한 활력의 아름다움은 특히 빠른 악장에서 찬연하게 빛난다. 협주곡이 시작되자마자 펼쳐지는 화창한 봄날의 정경에 홀딱 반하고, 가을의 협주곡에서의 수수하고 상냥한 춤은 너무 매혹적이어서 가만히 앉아서 듣지 못하게 만든다. 이 이탈리아 악단이 폭발적인 인기를 끈 것은 명료함과 청량감이 극대화된 생생한 활력 때문만은 아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황량한 풍경과 대비되는 겨울 2악장이 흐르면, 따스한 벽난로에서 가슴을 녹여주는 연주의 깊이에 돌연 숙연해진다. 디복스의 놀라운 20비트 녹음 기술이 이 음반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데 큰 몫을 했다. 생생한 현악기 연주의 장점을 극한까지 보여준다. 금세기 '10대 레코딩 중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180g LP

[수상 (Awards)]

- 1996 "One of the 10 greatest recordings of the Century" (In Tune, J & USA)
- 1997 "One of the 2 Best "4 seasons" (Le Figaro)
- 1997 "Eccezionale" 5 Stars (Musica / It,)
- 1998 (schwarzer Stern)=outstanding (Fonoforum)
- 1998 "Top" CD-Compact (Spain)
- 1999 "One of the 50 Top-CD of the Century (Scala 100, L.Brandt)
- 2008 "No.1 sur instruments originaux" (Diapason, F,july/aug.)
- 2009 "Carmignola still No.1 on original Instruments (Fonoforum 3/09)

Proprius

www.proprius.com

Proprius PROP7768
[180g 독일제작]

proprius

호칸 하게고드가 부르는 주옥같은 성가

하겐고드 (바리톤)

스웨덴어로 불려지는 유명 성가곡들을 감상 할 수 있는 LP이다.
스웨덴의 바리톤 가수 호칸 하게고드의 강하고 호소력 있는 음성을 LP로 감상할 수 있으며 이에 보조를 맞추어 안데르스 오르발과 아돌프 프레드릭스 합창단의 배경에 깔리는 연주는 하게고드의 음성을 도와 성스럽고 경건한 느낌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생소한 언어로 들려지는 "생명의 양식, 거룩한 밤"...등 12곡을 풍성하고 조화를 이룬 경건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LP, 최고의 사운드

SIDE A
(1) O, HELGA NATT/ OH HOLY NIGHT
(2) JUL, JUL STRALANDE JUL
(3) PSALTARE OCH LYRA
(4) AVE MARIA
(5) O, JESULEIN SUSS

SIDE B
(1) PANIS ANGELICUS
(2) GOTT IST MEIN HIRTE
(3) HERREN AR MIN HERDE
(4) DEN STORE, HVIDE FLOK
(5) NUN WANDRE, MARIA
(6) MARIAE WIEGENLIED
(7) BRED DINA VIDA VINGAR

Proprius PROP7744
[180g 독일제작]

세계 최고의 오디오 파일용 레이블
Proprius의 대표 타이틀

Antiphoneblues(안티폰블루스)

색소폰과 오르간, 무언가 어울리지 않을 듯한 독특한 악기편성이 들려주는 클래식 소품들과 유명 흑인 영가와 스웨덴 성가와 듀크 엘링턴의 곡까지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구스타프 스요크비스트가 연주하는 오르간의 선율과 아르네 돔네러스의 브르스적 색채가 강한 색소폰이 만들어 내는 오묘한 조화의 환상적 연주를 체험 할 수 있는 최고의 LP이다.

Silkroad LP

www.silkroad.graceapps.com

Silkroad SRM035LP
[180g 슈퍼 LP 독일제작]

바이얼린 벨기에 악파
최후의 대표 바이얼리니스트 "롤라 보베스코"의 대표적인 녹음

브람스: 바이얼린 협주곡과 소나타 C 단조

롤라 보베스코(바이얼린)

루마니아의 크라이오바 태생. 아버지 한테 처음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해 불과 6세 때 첫 콘서트를 가진 신동으로, 오늘날 처럼 미도리, 장영주 등이 없던 시절에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나타난 천부적 재능의 소유자였다. 어린 나이로 유럽 전역의 중요 도시에서 많은 연주를 해보였던 그녀는, 따라서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신동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파리 국립음악원에서 프랑스 악파의 두 거장인 마르셀 샤이유에와 쥘 부셰리에게 사사하였고, 그곳에서 불과 12세의 나이로 최우수 바이올린 상을 받았다. 그녀의 이력은 점점 더 화려해졌다. 1937년 브뤼셀의 유진 이자이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그녀는 최연소 수상자로 결정됨에 따라 그녀는 이제 명실공히 세계가 주목하는 괄목할만한 연주자로 급부상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그녀는 세계 최고의 악단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3번이나 초청 협연을 했고, 앙세르메, 첼리비다케, 켐페, 폰 마타치치 등 당대 최고의 지휘자들이 그녀를 불러 함께 연주했을 만큼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보베스코는 1980년 이래 그녀는 일본에서 정규적으로 협연하거나 독주회를 개최해왔다. 따라서 그녀는 최근에는 유럽 보다는 일본에서 더 유명한 음악가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녀는 일본 내에 중요한 팬 클럽까지 가지고 있으며, 그녀의 중요한 음반들은 일본의 킹 레코드를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물론 그녀의 레코딩 중의 몇몇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을 휩쓸기도 하였다.

우리에게는 많이 낯설기는 하지만 그녀는 유진 이자이 실내악단을 창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벨기에에서는 몇 년 동안 브뤼셀 왕립음악원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다.

그녀는 베리오(Bériot)에 의해 형성되었고, 비외땅, 이자이, 마르시크 그리고 그뤼미오를 잇는 벨기에 바이올린 악파의 최후의 대표자이다.

accentus music

아이의 순수함으로 주 샤오-메이는 더 이상 변방의 바흐 연주자가 아니다

바흐 / 프랑스모음곡 전곡

주 샤오-메이, 피아노

CD Accentus ACC30404

악상투스 레이블에서 출반한 두 번째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비롯한
바흐의 견반 작품들은 나지막한 나선형을 그리며 무한 동력처럼 끊임없이 순환한다.
그녀가 좋아한다는 음반의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후앙 미로의 작품세계처럼 샤오-메이가 그려내고자 하는 바흐의 프랑스 모음곡에는
아이 같은 천진함, 야수의 난폭함, 단순함으로 얻어진 자유가 느껴진다.
특히 피아노의 소릿결을 잘 잡아내는 악상투스의 녹음팀은 2016년 5월 게반트하우스의 멘델스존-잘에서의 녹음을 진행했으며
스타인웨이 콘서트 그랜드 모델 D274의 묵직한 질감도 연주를 더욱 빛나게 한다.
최근 녹음된 프랑스 모음곡 음반들 중 최상의 연주로 손꼽을 수 있을 것 같다.

표지사진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의 새로운 메카,
'함부르크 엘프 필하모니 홀'
그랜드 오프닝 콘서트 및 건물 형성
과정을 상세히 담은 귀중한 다큐 영상물

〈아울로스뉴스〉 2017년 7월호
통권 제 72호 발행 2017년 7월 10일
발행인 임용묵
출력 좋은그림
인쇄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922-0100(代)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본 책자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책자는 아울로스 웹사이트(www.aulosmedia.co.kr)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